

# 協商關係名文集





## 序 文

國際協商에 관한 계속적인 研究의 一環으로서 協商과 治世術에 관한 名文集을 編纂하는 것도 有益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本 名文集에 収録된 文獻은 時間的으로 보아 紀元前 800 年으로부터 現代에 까지, 그리고 그 形式으로 보아서는 寓話와 童話로부터 回顧錄과 論文에 까지 이르고 있다. 人間이 協商을 통해 共同의 利益을 增進하고 相衝하는 利害關係를 해결하기 위해 努力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에 모든 時代는 協商과 協商이 外交政策에서 担当하는 役割의 理解를 위해 그 나름의 寄與를 해 왔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生産的인 協商이란 平凡한 常識의 活動이다 現代의 戰略家와 政治學者의 著述에는 協商에 관해 배울 점이 많이 있기는 하나 이솝과 같은 聰明한 希腦人이나 벤자민프랭클린과 같은 英敏한 美國人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本 分科委員會專門委員들에 의해 編纂된 本 名文集은 대체로 時代順으로 엮어졌다.

1970年12月1日

上院 國家安保 및 國際活動分科委員會委員長

헨리. M. 제슨議員



## 目 次

序 文	1
人間과 짐승 (헤시오드)	5
投網속의 종달새 (이솝寓話)	6
名文 (孔子)	7
코마神話集의 策略 (G. 콘솔리피에코)	9
코린트人的 警告 (투키디데즈)	9
好機逸失에 對하여 (데 모스테네스)	16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懇求 (創世紀)	18
칼타고의 例 (도날드 암스트롱)	19
費用을 計算함 (누가福音)	28
토끼달님 (히토파데사寓話)	28
現實主義的인 調停者 (조인빌冢의 존)	31
意外之事에 對한 對備 (프란체스코 키치아르더니)	33
協商에 對하여 (프란시스베이컨)	35
가련한 리처드의 箴言 (벤자민 프랭클린)	38
慎重과 節制에 對하여 (데이비드 흄)	39
政治關係와 戰爭 (칼 폰클라우제비츠)	41
獅子와 豹범 (이반크리토프)	45
제퍼슨大統領에게 보낸 켈라틴財務長官의 書翰	48
파랑이 (찬스 크리스찬 안벨센)	54
대담한 말 그러나 단지 말에 不過한 (코버트 세실卿)	56
테어도어 루즈벨트의 金言	57
好意的 讓步의 回避에 對하여 (에리·크로)	58

커즌의 로잔느會議活躍相 (해 볼드 · 니콜슨) .....	61
로이드조지外交 (고든 · 크레이그) .....	68
國際的 和解 (켈로그 · 브리앙條約) .....	72
니용會議 (안토니 · 이든) .....	76
체코슬로바키아 : 뮌헨 다음에 온것, 1939년 3월 (다니엘 · 엘스버그) .....	78
鐵의 장막 전보 (윈스턴 처칠) .....	86
愉快하고 氣慨있는 親旧들 (딘 · 애치슨) .....	88
正當性과 可能性 (헨리 · A · 키신저) .....	94
科學者도 外交官인가 (로버트 · 길핀) .....	99
協商에 관한 몇가지 노트 (로버트 · A · 로베트) .....	104
政府로서의 同盟 (리처드 · E · 노이스태트) .....	106
協商으로서의 對決 (토마스 · C · 웰링) .....	110
效果的인 協商 (프레드 · 찰스 · 아이클레) .....	112

人 間 과 집 승

헤시오드 (800 BC頃)

그대들에게 帝侯를 위한 寓話를 들려 주리라  
帝侯들이 알고 있는 寓話를  
매 (鷹)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밤피꼬리의 금빛 찬란한 목을 나뉘쳐서  
하늘 높이 구름사이로 잡아간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밤피꼬리는 銳利한 발톱에 목이 꿰인채  
애처롭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매는 傲慢한 태도로  
一喝하여 이르기를  
「왜 이러는가? 어찌하여 울부짖는가?  
上典이 너를 데리고 있는데  
너는 내 너의 온갖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위해  
데리고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몸  
내 마음이 내키면 놓아 줄수도 있고 먹어 치울수도 있다.  
차기보다 힘센 者と 힘을 겨루려고 하는 者  
그는 바보이니라.  
싸움을 해도 敗할 것이요  
부끄럽게도 傷處 또한 입을 지니」  
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쏜살같이 나르는 飛鳥  
매가 이렇게 말하였다. ....

그대 페르세우스 (訳註: 제우스大神과 다나에 사이에서 태어난  
英雄. 怪女 메두사를 退治하고 후에 바다의 怪獸로부터 안  
드로메다를 구출하여 아내로 삼았음) 여!

내 그대에게 이르는 말을 銘心할지어다.

그리고 正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橫暴의 妄想을 떨쳐 버려야 할지어다.

제우스大神은

물고기와 野獸와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위해서 처럼  
人間을 위해서도 法을 定立했노라.

짐승에게는 正義의 觀念이 없는지라

그들은 서로서로를 捕食하나

그러나 人間에게는 제우스大神의 내려주신

正義가 있나니

結局 正義야말로

人間이 지니고 있는 가장 훌륭한 長点이도다.

[ 헤시오드作 리처드·캐티모어英訳:  
『作業과 歲月』(미시간大學校出版部  
刊, 1959) 중에서 ]

### 投網 속 의 종달 새

이솝 (620-560 BC)

한 가련한 종달새가 投網속에 갇혀 바야흐로 그의 목숨을 끊으  
려 하는 새뎃과 처량한 談判을 하게 되었다.(그 종달새는 말하기  
를) 슬프도다. 자 무슨 이유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도둑이 아니오. 金이나 銀을 훔치지도 않았단 말이오. 다만 보  
잘것 없는 한톨의 곡식을 貪냈을 뿐인데 죽어야 하다니.



教 訓

敵이 紛爭의 当事者이며 同時에 審判者일 때 理致를 따지려 든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 로제르·르스트랑쥐 編訳 『이솝寓話』 (1642年刊) 中에서 ]

名 分

孔子 (551-479 BC)

仲由 (訳註: 子路) 가 孔子에게 『衛의 임금인 將次 선생님을 기  
다려 政事를 하려고 하니 선생님은 무엇을 먼저 着手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다.

孔子 말씀하기를 『먼저 名分을 세우리라』

仲由 말하기를 『선생님이 우월하시다는 것이 事實이었군요. 어  
찌 먼저 名分을 세워야 하나이까?』

孔子 『賤하도다. 由여 君子는 알지 못하는 바를 말하지 아니  
하는 법이다. 名分이 서지 아니한즉 말이 事實에 順當치 아니하  
고 말이 事實에 順當치 아니한즉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이루  
지 못한즉 禮樂이 興隆치 못하고 禮樂이 興隆하지 못한즉 刑罰이  
適中치 못하며 刑罰이 適中치 못한즉 백성은 罔知所措 手足을 들  
바를 모르는 것이다. 故로 君子는 이름을 세울진댄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을진댄 반드시 行할 것이니 君子는 말을  
함에 구차함이 없어야 하느니라』

[ 訳註: 美上院國家安保 및 國際活動分科委員會 編者들은 쿠홍명  
英訳本 『論語』 (The Discourses and Sayings of Confucius)  
를 使用했으나 訳者는 金凡父 表文台共訳 『論語』 (玄岩社刊,  
1967.7月版) 를 使用했음 ]

△ 參 照 <原文>

子路曰『衛君待子而為政 子將奚先』 子曰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野哉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  
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錯手足 故君子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  
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 로마神託集의 策略

G. 콘솔리. 피에고

올림피아紀 50년( 訳註: 530 BC頃 ) 한 老婆( 訳註: 쿠아베의 巫女 데이포베)가 褒服차림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暴君 타르퀴니우스 ( Tarquin the Proud , 534 - 510 BC )를 拜誦하고 神託 즉 世界의 運命에 관한 予言이 담긴 9卷의 予言書를 金 300필립피를 받고 팔고자했다. 타르퀴니우스는 것처럼 엄청난 값을 주고 책을 사기를 거부했다. 老婆는 타르퀴니우스의 面前에서 그중 3卷의 책을 불사른 다음 타르퀴니우스에게 나머지 6卷을 치음과 똑같은 價格인 金 3백필립피를 주고 사라고 내밀었다. 타르퀴니우스가 如前히 冷笑의 빛을 띄우며 다시 拒絕하자 老婆는 말없이 다시 3卷을 불태운후 마지막으로 남은 3卷을 같은 값으로 사라고 졸랐다. 타르퀴니우스는 老婆의 끈질긴 酬酌을 異常히여겨 남은 3卷의 책을 당초의 要求額을 치르고 사들이고는 老婆에게 불에 태운 책들을 다시 만들어줄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老婆는 그 책들을 다시 만들수도 없으며 또 神의 靈感을 받지않는限 그 內容을 알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 G.Consoli Tiego, 『Cumae and the phlegraean Tields』  
mary A.Raiola Naples, 1927 )중에서 ]

## 코린트人的 警告

투키디데즈 ( 471 ~ 400 BC )

그리하여 라케에모니아( 訳註: 스파르타 )는 아테네로부터 侵略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同盟國들을 召集하는 한편 民會를 열어 이들의

聲討를 듣게 되었다. 그중 몇몇이 앞으로 나서서 聲討하기에 이르렀다. 아테네와 反目하고있는 많은 國家중에서 메가라는 그 條約( 訳註: 紀元前 445년의 30年條約)의 규정과는 달리 아테네 勢力圈內의 모든 港口와 아테네市場( Athenian Agora )의 出入을 禁止당했다고 주장했다. 코린트는 다른 同盟國들이 라케데모니아인들의 義憤을 자극시킬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앞으로 나서서 다음과 같이 聲討했다.

『라케데모니아인들이여! 그대들의 政治社會生活을 生動하게하는 信義의 精神이 그대들로 하여금 他國을 糾彈하는 우리들의 聲討를 不信하고있노라. 그대들의 沈着性은 信義의 精神으로부터 緣由된것 이기는 하나 그대들은 그 때문에 그대들의 國外에서 벌어지고있는 事態에 대하여 너무도 無知하도다. 우리들은 그대들에게 아테네가 우리들( 訳註: 스파르타를 盟主로하는 펠로폰네소스同盟을 일컬음)에 게 危害를 가할것이라고 屢屢히 警告했으나 그대들은 그때마다 우리들의 警告의 眞實性을 깨달으려고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들이 어떤 底意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닌가 疑心했도다. 그대들이 侵害를 당하기전 이 아니라 侵害를 당하고나서야 비로소 同盟國들을 이곳 스파르타에 불러모은것도 이 때문이다. 아테네의 유린을 당하고 또 그대들로부터 無視를 당함으로써 마땅히 酷毒하기 그지없는 糾彈을 하지않을수없는 우리들 자신보다 더 堂堂한 聲討의 權利를 갖고있는 者가 누가 있단말인가! 만일 그들( 訳註: 아테네)이 헬라스에 대하여 저지르고있는 犯罪行爲가 어느 한 구석에서 恣行되고있다면 그대들이 모르고있을수도 있으니 우리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을수 없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많은 말이 무슨 必要가 있단말인가? 그대들이 알고있다싶이 일부 國家는 이미 隸屬化되었

고 그들은 이 瞬間에도 他國 특히 그대들의 同盟國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또 그들은 오래전부터 戰爭을 予想하여 萬般의 臨戰態勢를 갖추어왔다. 그렇지않고서야 그들이 펠로폰네소스同盟에게 大規模의 艦隊를 제공해주었을런지도모를 코르키라(Corcyra)를 包圍하고 또 트라키아地方의 制霸를 위해 매우 有利한 拠点인 포티데아를 封鎖한 理由가 달리 있겠는가?』

『이 모든 責任은 그대들에게 있는것이니 그대들이 當初 그들이 페르시아戰爭이 끝난뒤 그들의 都市를 要塞化하고 그후에는 長城을 構築하도록 放置한 때문이며 또 지금 이 時刻까지 그대들이 그들이 隸屬化한 국민은 물론 오늘날에는 그대들의 同盟國 국민으로부터까지 自由를 詐取해온 때문이도다. 奴隸狀態란 眞實로 奴隸狀態를 終熄시킬수있는 힘을 갖고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無關心한 者들의 所行이기 때문이니 하물며 그들 아테네인들이 헬라스의 解放者라는 榮譽를 누리고있음에라!』

『우리들은 드디어 會同했도다. 그러나 會同하기가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現在 이 瞬間까지도 우리들은 明確한 目標를 갖지 못하고있노라. 지금쯤 우리들은 우리들이 侵害를 당했느냐의 與否가 아니라 어떠한 方法으로 對抗해야 하는가를 檢討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侵略者들은 단단한 覺悟를 갖고 주저없이 攻讎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들은 아무런 決意도 갖지 못하고 있도다. 그들은 그대들이 너무나 鈍感하여 눈치채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덜 大胆하나 그러나 그대들이 그들의 侵略을 意識的으로 看過해버리고 있다는것을 看破할때 그들은 事情없이 攻讎할 것이다. 모든 헬라스 사람들가운데서 그대들 라케데모니아 사람들만이 전혀 손을 쓰지않고있는 唯一한 國民이노라 그대들은 武力을 使用하지않고 다만 武力을 使

用할 것이라는 소문만을 퍼뜨려서 侵略者로부터 스스로를 防衛하고  
 있노라 그대들은 敵의 힘이 커지기 시작할때 敵을 粉碎하지않고  
 敵의 힘이 倍強되고 있을때 敵을 무찌르려는 어리석은 꾀들이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을 依支할수 있다고 항상 일컬어지다니,  
 風聞은 眞實을 凌駕했다. 우리들 모두는 페르시아가 머나먼 地球  
 의 한 귀퉁이로부터 出征하여 펠로폰네소스를 攻讎하자 비로소 그  
 대들이 그들과 對抗하기위해 出征했던것을 알고있노라. 이제 그대  
 들은 페르시아와 같이 멀리 떨어져있지도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  
 아테네의 所行을 傍觀하고있노라. 그대들은 敵을 先攻하는것이 아  
 니라 国力을 크게 增強시킨 敵의 攻讎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제서  
 야 싸움을하는 無謀한 짓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다. 그대들은 野  
 蠻族의 攻讎이 주로 그들 자신의 過誤때문에 失敗했으며 또 우리  
 가 아테네의 攻讎으로부터 살아 남아있을수있었던 것도 그대들의  
 어떤 支援을 받아서하기보다는 아테네인들 자신의 失策때문이었던  
 경우가 보다 좋하다는것을 알고있도다. 일부 同盟國들은 그대들이  
 그들에게 불어넣어준 希望과 期待感때문에 이미 破滅당하고 말았노  
 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들을 너무도 全的으로 信賴하고 있었던지  
 라 스스로 아무런 防備策을 取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  
 렇게 聲討하는것은 敵意때문이 아니라 깨우쳐주기 위한 方法으로  
 하는것이니 誤解말지어다. 人間은 過誤를 저지르는 親舊에 대해서  
 는 깨우쳐주는 법이나 자신에게 害를 가하는 敵에대해서는 糾彈하  
 는 법이기 때문이다.』

『確實히 우리들은 어느 隣邦이 過誤를 저질렀다면 그 隣邦을  
 질타할수있는 權利를 갖고있노라. 重大한 利害關係가 걸려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아는限 그대들은 이에대해 無感覺하도다. 그리고

그대들은 그대들이 戰鬪하지 않으면 안될 이들 아테네인들이 어떠한  
 部類의 인간이며 또 그대들 자신과는 얼마나 判異한 인간인가하는  
 것을 결코 深思熟考해보지도 않고있노라 그들은 모든 計劃의 構想  
 과 實踐이 다같이 機敏한 革新家인데 比해 그대들은 既往에 所有  
 하고있는것만을 保存하는데 汲汲한 創意性없는 사람들이며 또 行動  
 面에서는 마땅히 해야할 일조차하지 않는 非行動的인 사람들이도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상으로 大胆無双하고 政策上非難을 받을수있는  
 冒險을 무릅쓰며 危險에 勉해서도 希望感으로 充滿해있는 反面 能  
 力以下로 훨씬 無氣力하게 行動하고 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確  
 實한것마저 믿으려하지 않으며 또 危險이 惹起될때에는 그로부터 결  
 코 헤어 나오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이 그대들의 性稟이도다.  
 그들은 斷乎하나 그대들은 優柔不斷하며 또 그들은 恆常 海外로  
 나거나 그대들은 恆常 國內에만 머물러있도다. 그들은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 무언가 獲得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反面 그대들은  
 새로운 冒險이 既往에 所有하고 있는것을 危殆롭게 하지않을까 두  
 려워하기 때문이도다. 그들은 征服者가 되면 그들의 勝利를 徹頭  
 徹尾하게 追求하며 敗北했을때 일지라도 可能한限 그들의 땅을 조  
 금밖에 내주지않으려고한다. 그들은 肉身과 精神 그리고 가장 貫  
 重한 財物을 마치 제것이 아닌양 祖國과 祖國의 利益을 위한 活  
 動에 바친다. 그들은 國家가 構想했던 어떤 腹案을 實現하지 못할  
 때에는 目身の 不幸인양 생각하고 어떤 冒險이 成功을 거두게 되면  
 그 冒險의 成果를 조금 차지하게되었다고 생각할뿐이다. 그리고  
 設令 挫折을 당한다하더라도 그들은 그 즉시 그들의 慾望을 補償  
 하고 充足시켜 줄수있는 새로운 野望을 생각해낸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希望을 갖는다는것은 곧 所有하는것이어서 그들

은 한 瞬間도 놓치지않고 어떤 構想을 實踐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든 活動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全生涯를 통하여 果敢하게 危險을 무릅쓰면서 스스로 氣尽脈尽할때까지 尽力하는것이다. 그들은 恆常 보다 많은것을 追求하고있기 때문에 利益을 적게 享有하는 者는 한사람도 없다. 任務를 完遂하는것만이 그들의 唯一한 休養이며 또 그들은 便安한 休息을 설사이없는 勞役に 못지않는 不幸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한마디로 評價하여 스스로 平穩하게 生活하지도않으며 또 他人에게 平和를 許容하지도않는것이 그들의 天性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말일것이다. 』

『라케데모니아인들이여! 그대들은 이같은 敵國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아무런 措置를 取하지않고있노라 그대들은 平和란 不義에 屈服하지않겠다는 決意를 보이면서 스스로의 힘을 正堂堂하게 사용하는 者들에 의해서 가장 훌륭하게 確保된다는것을 알지못하고 있노라. 그대들은 正義란 他人을 괴롭히지않고 自己防衛로써 危害를 回避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있으나 그러나 이같은 政策은 設습 그대들의 隣邦이 그대들과 똑같은 사람들일지라도 거의 成功을 거두지 못할것이며 또 우리들이 지금 방금 指摘했다싶이 現在의 事情에 있어서는 그대들의 態度는 그들의 態度와 比較할때 時代에 뒤진 낡은것이도다. 技術에 있어서는 새로운 發明品이 항상 凱歌를 울리는것이 必至의 事實인것과 마찬가지로 平和를 누리고있는 國家에서는 傳統의 不擾亂이 가장 좋은것이기는 하나 人間이 許多한 事業을 착수할 必要가 있을때에는 많은 創意性이 要求되는것이노라. 아테네人들은 폭넓은 經驗을 해왔고 그리하여 그대들보다 훨씬 많은 新案物을 創出해왔노라 』



『그대들이여 지금 이 자리에서 優柔不斷에 終止符를 찍고 당장 아티카를 攻略함으로써 그대들이 保護해줄것을 約束한 그대들의 同盟國들 특히 포티대아를 支援하라 親旧를 가장 惡辣한 敵에게 팔아넘기지 말지며 또 우리들로 하여금 絶望에 빠진 나머지 敵과 同盟을 맺으려는 마음을 갖자않도록하라. 우리가 設슈 그같은 길을 扞한다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盟誓의 証人인 諸神이나 우리들을 지켜보고있는 人間들 앞에서 盟誓코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노라 왜냐하면 盟約을 破棄하는 者는 버림을 받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依支하는 者가 아니라 防衛해줄것을 約束한 盟邦을 저버리는 者이기 때문이도다. 그대들이 힘을 發揮해준다면 우리들은 계속 그대들의 友邦이 될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그대들을 저버린다면 우리들은 不敬罪를 짓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들의 嗜好에 꼭 適合하는 同盟國을 쉽사리 찾지도 못할것이다. 그대들은 이 問題에 대하여 賢明한 決斷을 내려야하며 그리하여 祖上으로부터 물려받은 펠로폰네소스의 盟主權을 아테네人들 못지않게 榮光스럽게 發揮할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지어다』

[ 루키디데즈著『펠로폰네소스戰爭史』(트웨이인 出版紙刊 뉴욕  
1963) 중에서 ]

### 好機逸失에 대하여

데모스테네스(384-322BC)

만일 아이스키네스(訳註: 389~314 BC頃, 마케도니아도 필립 2세와의 講和를 主張했던 아테네의 雄弁家로 데모스테네스의 政敵)가 私私로운 身分으로 어떤 경우에 失言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失手를 저질렀다면 그를 너무 嚴重하게 問責하지 말고 不問에 聽任해 그에게 容恕를 베풀어주시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대들의(訳註: 아테네人을 가르킴)使臣의 몸으로서 金錢을 貪하면 故意的으로 그대들을 欺瞞했다면 寬大하게 보아넘기지말것이며 또 그의 發言에 관한 解明을 듣기위해 그를 召還할 必要까지는 없다는 陳情을 容納하지도 말지어다. 設令 言行문제가 아니라하더라도 使臣이 正義를 깨우치지않으면 안되는 理由는 무엇이겠는가? 使臣은 -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같은 權限을 賦与하지도않지만 - 言行과 時間을 除外하면 船舶이나 地域 또는 軍隊나 城砦에 대해서는 아무런 支配權도 갖고있지않다. 時間에 관해서 말할진대 만일 國家의 好機가 逸失된 原因이 使臣에게 있지않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罪가 없으나 그러나 만일 國家의 好機가 逸失된 原因이 그 使臣에게 있었다면 그는 犯罪行爲를 저지른 셈이되는것이다. 또 使臣의 言行에 관해 말할진대 만일 그의 報告가 事實이거나 有利한 것이라면 無事하나 만일 그의 報告가 金錢에 買収된 虛偽報告이며 동시에 災殃을 招來할 수 있는것이라면 그의 罪를 밝혀야할지어다.

人間이 그대들에게 加할수있는 害惡으로서 거짓말보다 더 큰 害惡은 없노라. 政治가 弁論을 그 基礎로 하고있는 곳에서 만일 그 弁論이 眞美이 아니라면 어찌 政治가 安全하게 行해질수있을 것이며 特히 雄弁家가 賂物을 받고 敵國의 利益을 增進하기위해 弁論을 한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眞正한 危險을 謀免할수있겠는가? 그대들로부터 그대들의 好機를 剝奪한다는 것은 僭王들이나 暴君을 掠奪하는것과 똑같은것일수없다. 나는 寡頭政治나 暴君政治下에서는 萬事가 한마디의 命숨으로 迅速하게 行하여진다고 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있어서는 貴族會議가 먼저 萬事を 審議하여 暫定的인 決議를 通過시키지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隨時로 어느때나 할수있는것이 아니라 使者와 使臣의 接見에 관한 布告가 내려진 然後에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런다음에 그대들은 法에 依해 定해진 時間에 限해서 民會를 召集해야만하고 또 民會에서는 그대들의 眞正한 利益을 위해 弁論하는 者들이 無知나 邪心때문에 이들에 對抗하는 反對者를 制壓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외에도 設令 어떤 措置가 決定되고 그 措置의 利點이 이미 明白해진 때일지라도 大多數의 국민들에게 그들이 決定된바를 實行하는데 必要로하는 手段을 確保할수있는 時間의 余裕가 許容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 아테네와 같은 制度의 國家에서 決定的으로 重要한 時間을 逸失케하는 者는 그대들로 하여금 時間을 놓쳐버리게한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目的의 達成을 挫折케한것이 되노라.

[A.W.Pickard - Cambridge 訳, 『데모스테네스의 雄弁集 (J.M. Dent and Sons Ltd., London. 1963) 중 『使臣에 관하여』중에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또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義人을 惡人과 함께 滅하시려나이까 그 城中에 義人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滅하시고 그 오십 義人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義人을 惡人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義人과 惡人을 均등히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公義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城中에서 義人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地境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義人중에 오인이 부족할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城을 멸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아니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 칼 타 고 의 例

도날드 암스트롱

紀元前 150年을 前後하여 칼타고에 대한 로마의 外交政策은 漸進的인 行動으로부터 보다 好戰的이고 侵略的인 帝國主義로 변모했다. ....

紀元前 147年 2月 우티카 (Utica)가 갑자기 칼타고를 背反하고 로마로 하여금 그들의 港口와 港口施設을 利用하도록했다. 이같은 消息은 칼타고를 驚愕하게했으나 칼타고에 諜者들을 密派 暗躍시키고있었던 로마에게는 놀라움을 주지 못했다.

우티카의 背信을 로마의 戰爭危殆의 不吉한 前兆로 옳게 解釋한뒤 絶望에 빠진 칼타고는 元老院 秘密會議를 召集했다.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폴리비우스 (訳註: 200 - 118 BC頃, 紀元前 2, 3世紀의 로마史를 記述한 그리스歷史家)는 칼타고에게는 『勇敢하게 應戰하느냐』 아니면 無條件 降服을 뜻하는 로마式의 안곡한 語法인 『로마의 信義에 스스로를 委託하느냐』하는 兩者択一의 길밖에 없었다고 記述하고있다. ....

칼타고가 論難을 벌이고있는 동안 로마는 行動을 取했다. 칼타고

의 使臣들은 로마에 到着하여 로마의 元老院이 紀元前 149年 3월 카피톨(Capitol) 神殿에서 會議을 열고 이미 宣戰布告를 한 것을 알았다. ……

칼타고 使臣들은 하나의 既定事實(Tait accompli)에 逢着했고 칼타고는 『이같은 事態로 因해 選擇의 余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信義에 그들을 委託했다. 즉 칼타고가 無條件 降服을 한 것이었다. 事實 이는 로마의 約束을 믿을수만 있다면 매우 훌륭한 措置였던것같다. 폴리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있다.

『칼타고가 無條件 降服을 한 직후 칼타고인들이 로마元老院으로 불리워졌는데 이 자리에서 로마執政官은 이들에게 元老院이 칼타고에 대해 그들의 全領土와 公私間의 모든 財産은 물론 自由와 獨自의인 法律을 許容하기로했다. (註:本文著者傍点)는 決定을 通告 해주었다. 칼타고인들은 이같은 決定을 듣고 기뻐하면서 無條件 降服을 選擇함으로써 로마元老院으로부터 가장 本質적이고 重要한 모든것이 그들에게 許容되는 훌륭한 待遇를 받게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執政官은 이는 칼타고가 30일以內에 칼타고의 元老院議員들과 그밖의 다른 要人들의 아들 3백명을 로마의 執政官들에게 人質로 보내고 또 칼타고가 執政官의 命令에 服從한다는것을 條件 附로 한 講和條件이라고 通告했다.

이같은 條件은 대부분의 칼타고 元老院議員들에게는 아들을 잃게 되는것을 意味하는것이었지만 그들은 人質의 即刻 選擇과 派送을 命令했다. 迅速한 履行이 로마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런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폴리비우스는 칼타고는 遲滯없이 『젊은이 3백명을 뽑아 크나큰 悲歎의 눈물을 지으며 떠나보냈으며 이들이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에 依해 護送되어갈때 女人들은 특히 激烈한 슬

품에 젖어있었다』고 記述하고있다. ……

로마遠征軍은 우티카서쪽 오마일地點의, 튜니스港으로 빠져들어가는 길고 좁다란, 그리고 상당히 높고 斜面이 가파른 岬에 布陣했으며 平原의 要塞化는 事實上 로마遠征軍이 直接的인 攻勢이나 包圍를 당할수 없게끔해주었다. 이 野營陣地는 第2次 포에니戰爭때 이곳에 布陣했던 大스키피오將軍(Publius Cornelius Scipio Africanus Major)의 이름을 따서 카스트라코르넬리아(Castra Cornelia)로 命名되었다.

칼타고의 使臣들은 반노(Banno)라는 代弁者의 引率下에 카스트라코르넬리아로 갔다. 로마의 執政官들은 이들의 來訪을 맞아 로마軍事力을 大的으로 誇示할 準備를 해놓고있었다. 營止門으로부터 執政官들이 기다리고있는 단에 이르는 긴 길에는 8만명의 로마步兵과 4천명의 騎兵들이 不動姿勢를 取한채 堵列하고 있었다. 各軍團은 그들의 鍔독수리旗를 步兵隊는 銅製동물을 올려놓은 軍旗를 그리고 騎兵隊는 그들의 部隊旗를 각각 나부끼고 있었다. 칼과 창, 헬멧과 방패가 봄의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있었다. 칼타고 使臣들이 徐徐히 닥아오자 트럼펫에서 광파르가 울려퍼져나왔다.

執政官들은 諷民官들과 그밖의 다른 補佐官들을 거느리고 칼타고 使臣들과 距離를 두기위해 처놓은 밭할 뒤편에 앉아있다가 거드림을 피우면서 이들에게 所請을 말해보라고 命令했다.

반노는 和解와 寬容을 호소했다. 그는 칼타고가 이미 降服을 했기때문에 로마가 宣戰布告를 하거나 軍隊와 艦隊를 出動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칼타고는 50년간이나 從前의 平和條約의 規定을 誠實하게 履行해왔으며 이제 또 이들은 어떠한 処罰에도 服從할 用意을 갖고있었고 이들은 人質을 주어보냄으로써 이갈

은 用意를 立証했다. 반노는 칼타고의 宥和行爲를 낱낱히 들어 說明했다. 칼타고가 마시니사(Masinissa)를 相對로 武器를 들고 싸웠던것은 事實이나 이는 그들의 領土占領에 대한 당연한 應酬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戰爭을 일으킨 將校들을 死形에 處하지 않았는가? 칼타고는 지금 慈悲와 寬容을 哀願하면서 執政官들에게 『칼타고가 그들의 財産을 享有하고 獨自의 法律의 支配를 받으며 계속 自由롭게 生活하도록 해준다』는 로마의 約束을 想起시키고 있는것이다.

執政官 켄소리누스(Censorinus)는 로마人 特有의 버릇 그대로 애매모호한 대꾸를 하다가 드디어 本心을 토로했다. 그는 『만일 그대들이 眞正으로 平和를 원한다면 武器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 公私間의 그대들의 모든 武器와 戰爭裝備를 우리들에게 引繼하라고 말했다.

칼타고는 이를 應諾하기로 約束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칼타고는 2만명의 軍隊를 集結시켜놓고 그들을 危脅하고있었던 하스드루발(Hardrubal)에 대해 無防備狀態가 될것이라고 諷刺하게 指摘했다. 로마執政官들은 그것은 자기들에게 말기라고 對答했다.

로마執政官들은 2명의 元老院議員을 任命하여 칼타고의 武装解除를 監督하게 했는데 그중 한사람은 나시카(Nasica)였다. 나시카의 任命은 칼타고人들에게 그들이 公正하게 處理될것이라는 期待를 붙여 넣어주었던것같다. 칼타고는 20만벌(組)의 軍人裝備 - 鉄帽, 防牌, 胸牌, 정강이받이 및 武器 - 칼 및 창을 모아 이를 로마武装解除委員團에게 移讓했다. 그밖에도 칼타고는 불과 석화살을 5백야드밖으로 까지 쏠수있는 오천門의 投石砲와 『헤아릴수없이 많은 鎗』을 移讓했다. 그러나 로마人은 疑心많은 국민이었다.



아피안 ( 訳註 : Appian, 紀元 2 世紀의 그리스歷史家 ) 은 『 敵이 집을 滿載한 수많은 馬車를 끌고 제발로 걸어들어오는 壯觀은 비할데없이 멋있는 光景이었다』 고 論評하고있다.

로마 武裝解除委員團이 우티카로 돌아가 모든 武器가 完全히 移讓되었다고 報告하자 執政官들은 講和條約의 最後의 條件을 알리기 위해 칼타고 代表團을 召還했다. 칼타고는 이번에는 『 로마執政官들에게 칼타고에 대한 同情心과 尊重心을 불어 넣어 줄수있게 되기를 바라는 指導的인 元老院議員, 市民, 望職者 및 그밖의 다른 著名人士들』 로 代表團을 補強했다.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執政官들 앞에 섰다.

켄소리누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맛살을 찌프리며 칼타고인들을 한동안 말없이 노려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 칼타고인들이여 ! 지금까지 人質과 武器面에서 보인 그대들의 順從은 칭찬받을만하노라. 그러나 必要한 경우 우리는 수다스럽게 말을 늘어놓아서는 안되는도다. 아직도 남아있는 로마元老院의 命을 勇敢하게 견디어내도록하라. 칼타고를 우리들에게 讓渡하고 海上으로부터 최소한 10 마일 떨어진 그대들의 領土內에서 그대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後退하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대들의 都市를 完全히 破壞시킬 覺悟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恭遜하던 칼타고인들이 분노로 치를 떨었다. 降服 初期에 처음은 人質문제로 그 다음은 武裝解除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칼타고의 緊張感이 漸高되고 있었던 터였다. 수천명의 로마兵士들에 포위 당해있는 소수의 無力한 칼타고 使臣들은 『 죽고싶어서였던지 아니면 제 精神이 아니어서였던지 그도 아니면 로마인을 자극하여 使臣들에게 侮辱的인 暴行을 가하도록하려는 決心이었던지 로마인을

極烈하게 嘔吐했다. 그들은 땅바닥에 쓸어졌다. 드디어 興奮이 사라지자 그들은 마치 死者처럼 조용하게 쓸어져있었다』 그리하여 로마인들까지도 感動했다.

칼타고인들이 켈소리누스의 말의 意味를 깨닫는데에는 불과 몇초도 걸리지않았다. 이의 受諾은 家庭과 生業, 商港과 軍港, 海上貿易과 産業 그리고 寺院과 公共建物の 喪失을 意味하는것이였다.

第2의 칼타고를 建設하자면 몇년의 勞役이 필요할것이다. 그리고 城壁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이 마시니사와 우티카로부터 스스로를 防衛할수있을것인가?

이보다 더한층 強力한 動機가 칼타고인들에게 活力을 불어넣어주었을런지도 모른다. 칼타고의 諸神은 寺院에 奉安되어있었다. 그리고 칼타고인들에게는 그들의 先祖인 페니키아인들과 마찬가지로 物質的 生業活動을 超越할수있는 唯一한 關心事가 있었으니 곧 宗教가 그것이었다. 그들은 遊戲를 즐기지않았으며 劇場과 娛樂마저 꺼려했다. 그들은 그들의 都市와 商業, 家畜과 穀物, 그리고 그들의 建康과 家庭을 守護하기위해 諸神을 섬겼으며 諸神의 神殿을 衷心으로 尊崇했다.

칼타고가 로마에 대해 屢屢히 宥和의인 태도를 보인 動機는 物質主義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宥和는 칼타고인들로부터 諸神의 祠堂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 宥和의 代價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現代人の 칼타고인들의 宗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던간에 그것은 칼타고인들에게 있어서는 聖戰의 熱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精神的 힘이었던 것이다.

로마의 執政官들은 칼타고使臣들을 불러가게 하기 앞서 반노의 말을 들어보기로 同意했다. 반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로마인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우리가 앞서 그대들에게 말한바에 대해 아직도 多少나마 관심을 갖고있다면 우리들은 마치 權利를 爭取하기 위해서 싸움하고있는 語套로서가 아니라 그대들이 우리 傭 對한 그대들의 慈悲가 根 拠없는것이 아니며 또 理由없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을수있도록 말해 주고자 하노라. 우리는 한때 아프리카와 広濶한 海上의 支配者였으며 또 帝國을 얻기위해 그대들과 투쟁을 하였노라. 우리는 스키피오時代에 우리들이 保有하고있던 모든 船舶과 코끼리들 그대들에게 拋棄함으로써 이 모든것을 斷念했다. 우리들은 그대들에게 朝貢을 바치기로 同意했으며 그리하여 指定된 時間에 朝貢을 바치고 있다. 자. 이같은 盟約의 목적자인 諸神의 이름으로 우리 칼타고를 살려주고 또 로마와 칼타고가 友邦이 되도록하여야 할것이라는 스키피오의 盟誓를 존중하라. 우리는 講和條約을 違反하지 않았으며 또 船舶도 코끼리도 전혀 保有하지 않고 있다. 그대들에 대한 敬意도 거짓이 아니노라. 그러기는 커녕 우리들은 그대들의 편에 加担하여 3명의 王을 相對로 전투를 했노라』

반노는 로마에 다시 使臣을 派遣하는 것을 許諾해 줄것을 요청하고 그의 熱辯을 마쳤다. 아마도 元老院은 칼타고가 存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들의 陳情을 好意的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터이니.

켄소리누스가 回答을 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조금도 굳힘없이 頑強한 態度로 우선 칼타고 使臣들에게 그가 로마 元老院의 命令에 따라 行動하고있음을 想起시키면서 그러니 討論은 所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칼타고의 滅亡이 칼타고人들을 利롭게 할것이라는 점을 칼타고代表들에게 納得시키기위한 主張만을 늘

어긋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바다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이 한때 바다를 利用하여 獲得하였던 勢力圈과 權勢에 대한 鄉愁를 느끼게 해주노라. 바다는 그대들이 不正한 짓을 하도록 衝動하고 그리하여 그대들을 破滅로 이끄노라. 바다는 그대들로 하여금 시 실리를 攻略하게했고 다시 그곳을 잃게했노라. 그후 그대들은 스페인을 侵略했다가 그곳으로부터 遂出당했노라…… 그대들은 항상 貪慾스러운 마음을 일게하는 바다때문에 또 사르디니아를 잃었노라. 칼타고人들이여! 나의 말을 믿으라. 農事와 平穩의 즐거움을 滿喫할수있는 内地의 生活이야말로 훨씬 더 平和스럽느니라. 아마도 農事の 利得이 商業活動의 利得보다 적을런지는 모르나 農業은 보다 確實하고 훨씬 더 安全하노라』

그는 이어 칼타고人들은 로마가 그들로부터 誘惑의 摩手를 除去해 주려고 하는데 대하여 마땅히 感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마가 海岸으로부터 12 마일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있음을 想起시키면서 海岸으로부터 불과 10 마일 地點에 새로운 칼타고를 建設할수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巧妙한 甘言利說의 手腕에서 볼진대 켄소리누스와 겨룰수있는 者는 아마도 히틀러나 蘇聯과 中國共產主義者들밖에 없으리라. 그는 로마의 雅量을 보여주기도 하는듯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우리는 그대들이 갖고자하는 곳이라면 어느곳이라도 주겠고 또 그대들이 그곳을 차지하면 獨自的인 法律아래서 生活하도록 해주겠노라 칼타고가 우리의 命命에 順從한다면 獨自的인 法을 갖도록 해주겠다고 우리가 以前에 말한바는 바로 이것이었노라. 우리는 그대들을 칼타고로 생각한것이지 그대들이 살고있는 땅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노라.』

켄소리누스는 暫時 말을 멈추었고 칼타고使臣들은 너무도 驚愕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고있었다. 켄소리누스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칼타고使臣들을 울러가게했다.

『說得과 慰撫의 方法으로 할수있는 말은 모두 다했노라. 로마 元老院의 命令은 即刻 履行되지 않으면 안되노라. 그러므로 그대 들은 아직 使臣의 몸이니 故國으로 떠나라』 그러나 칼타고使臣 들은 이같은 惡毒한 通牒을 携帶하고 帰國하자니 무서웠다. 그들은 同胞들로부터 禍를 당하지않기위해 로마에 대해 칼타고에 艦隊를 出動시키도록 요청했다. 그들은 侮辱과 羞恥를 느끼면서 끝내 『幸運과 窮乏이 우리들을 이 地境으로 몰아부쳤으니 우리들은 그대들에게 그대들의 軍艦들을 극히 우리의 祖國으로 出動시켜주기를 요청하노라』고 말하고 말았다. 로마는 好意를 베풀어주었다. 즉 로마機動艦隊가 칼타고부근에 碇泊한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最後通牒이 亂暴하고 憤怒에 찬 混亂을 惹起시킬것이라던 칼타고使臣들의 予測은 的中했다. 消極的이고 溫順한 국민을 結束시켜 斷乎 하고도 勇敢無變한 國民으로 突發시킨것은 眞珠灣奇襲事件이었다.

칼타고에게는 싸우다가 죽느냐 아니면 漸進的으로 掠奪을 당하다가 죽느냐하는 兩者択一만이 있었다.

칼타고 국민은 戰爭을 하자고 아우성쳤고 그리하여 그날밤 칼타고 元老院은 宣戰布告를 했다. ....

第3次 포에니戰爭이 끝난 뒤에는 講和條約은 없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講和條約을 締結할 相對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피안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있다. 『스키피오는 建國以前 700 년간이나 繁昌을 누리면서 尙大한 陸地와 島 그리고 바다를 統治했고 莫強한 帝國에 窺지않게 武器와 艦隊 코끼리와 黃金이 豊富했고 그러면서도 猪突的인 勇猛性과 機敏한 行動態勢面에서 로마의 追從을 不許했던 칼타고가 軍艦과 武器를 剝奪당하고나자 3년동안이나 기근을 견디어가며 熾烈한 戰爭을 치른끝에 드디어 完全滅근의 終末을맞는 光景을바라보면서 눈물을지으며 敵國인칼타고의 運命을 公公然히 哀痛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지고있다』

(도널드 암스트롱 저 『躊躇하는 戰士들』 ( 토마스 Y 크로웰 社刊 뉴 York 1966 ) 중에서 )

## 費用을 予算함

누가福音(第 14 章 25 節~32 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役事)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의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때에 먼저 앉아 일만(1万)으로서 저 이만(2万)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和親)을 청할지니라』

## 토끼 달님

(9世紀~12世紀頃)

옛날 어느때 雨期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전혀 오지 않고 있었다. 한 때의 코끼리들이 渴症의 苦痛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우리들이 목숨을 扶持할 길이 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는 微物들에게나 쓸모가 있을 조그만한 연못뿐입니다. 목욕을 제대로 못해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우두머리는 이같은 하소연을 듣고서 무리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湖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잠에 따라 이 호숫가에서 살고 있던

토끼들이 코끼리의 발굽에 짓밟혀 죽어갔다. 그리하여 실리무카라는 이름을 가진 토끼가 토끼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 코끼리 떼는 渴症으로 苦生하고 있으니 매일같이 이리로 올것이 確實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沒死하고 말 것이다』

이때 비자야라는 한 늙은 토끼가 『絶望하지 말라. 내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늙은 토끼는 이렇게 큰 소리쳐놓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는 가면서 혼자 곰곰히 생각했다: 코끼리 떼에 다가가서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코끼리는 슬쩍 건들기만해도 남을 죽일 수 있다는데…… 뱀은 남의 뱀새를 말기만해도 죽일 수 있고, 임금은 눈썹 하나 까딱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물소는 머리를 조아리기만 해도 남을 죽일 수 있다지. 그러나 이 산마루에 올라가서 코끼리 떼 우두머리에게 말하리라.

늙은 토끼는 정말 산마루에 올라서서 말을 건넸다. 그러자 코끼리 떼 우두머리는 『네 늙은 누군가? 어디서 온 녀석인고?』라고 물었다. 늙은 토끼는 『나는 달님이 보내신 天使니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코끼리 떼 우두머리는 『그렇다면 用務를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늙은 토끼는 이렇게 말하였다. 『힘센 코끼리들이여 들어라 天使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도다.

真正 天使의 生命은 神聖한것인지라. 그는 항상 真理를 말하노라. 내 달님의 命을 받잡고 이야기하노니 들어라! 달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달님湖水의 把守인 토끼들을 내쫓은 것은 잘못이니라. 이들 파숫꾼 즉 토끼 그들은 나의 臣民이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人間들 사이에서 토끼달님(註1)으로 불리워지고 있느니라』 늙은 토끼의 이같은 말을 듣고 코끼리 떼 우두머리는 恐怖에 질려 『모르고 한 것이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않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늙은 토끼는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곳 湖水속에서 憤怒로 치를 떨고 계시는 달님에게 머리 숙여 敬拜하라. 달님의 容恕를 빈 다음 떠나가라!』고 했다. 늙은 토끼는 이윽고 밤이 되자 코끼리떼 우두머리를 이끌고 가서 湖水 水面에 反射되어 철렁이는 달님을 보여주고는 그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敬拜를 드리게 했다.

늙은 토끼는 『달님이시여! 이 者가 모르고서 그같은 것을 했다 하옵니다. 容恕하여 주옵소서』라고 懇請했다. 이같이 말한 다음 늙은 토끼는 코끼리떼 우두머리를 놓아 보냈다. 비록 힘센 者일지라도 그 보다 높은 權威가 있다는 것을 假裝하면 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이르고 있다. 이렇게하여 토끼들은 달님의 臣民을 假裝함으로써 幸福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

註(1): 힌두族은 달을 우리 西歐人들 처럼 얼굴의 形狀이 아니라 토끼의 形狀으로 보고있다.

[ J. B. B. 그레이 編訳: 『印度의 設話와 伝説』-(옥스포드 大学校出版部刊 1965)중에서 ]



現實主義的인 調停者

조인빌家의 손 ( 1224 ~ 1317 )

잉글랜드王 ( 訳註 : 헨리 3 세 ) 이 王妃 및 王子들과 함께 프랑스에 가서 두 王國간의 講和를 論議하게된 것은 聖루이스王 ( 訳註 : 프랑스카페王朝의 루이 9 세 在位 1226 ~ 1270 ) 의 交渉에 依해서였다. 聖루이王의 朝臣들은 兩國의 講和를 極力 反對하면서 아뢰기를 『전하! 小臣들은 전하와 전하의 先王들이 往服을 통하여 그리고 잉글랜드王의 權利喪失을 통하여 獲得한 領土의 많은 部分을 전하가 잉글랜드王에게 讓渡하기로 決定한대 대하여 驚愕을 禁치 못하나이다.

이 問題에 대한 小臣들의 所見은 만일 전하가 이 領土에 대해 領有權을 所有하지않고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하가 先王들의 모든 征服을 拋棄하여야만 비로소 전하가 잉글랜드王에게 本來대로 返還해주는것이 될것이며 만일 전하가 이 領土에 대해 領有權을 소유하고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領土를 讓渡한다는 것은 단지 모든 領土를 拋棄하는것이 될것이라는 것이옵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말을 듣고 聖루이王은 『경들이여! 짐은 잉글랜드王의 先王들이 그 領土를 喪失하여 짐이 이를 所有하게 된것은 完全히 正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있노라. 따라서 짐이 그 領土를 잉글랜드王에게 주려고하는 것은 짐이 그나 또는 그의 後嗣들에게 어떤 義務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四寸之間인 그의 王子들과 짐의 王子들간에 愛情을 結려주기 위한 것이노라. 더구나 짐은 領土讓與에 依해 잉글랜드王이 以前과 같이 짐의 封臣이 아니라 이제는 짐에게 忠誠을 바친다는 利得을 얻게 될것으로 생각하노라』고 對答했다. 全世界에서 聖루이王보다도 臣民 특히 隣接之間인 貴族들과 例컨대 우리들이 海外로부터 돌아왔을때 熾烈한 戰爭을 하고 있었던 조인빌領主의 三寸인 살론백작과 그의 아들인 버군디

백작과 같은 血緣之間인 公侯들간의 平和를 위해 熱心히 努力한 者는 아무도 없었다. 聖루이王은 父子之間의 平和를 위해 自費를 써가면서 그의 諮問官 몇 사람을 버군디에 派遣했으며 그의 努力은 成功을 거두었다. 그후 상파뉴家の 티보트2세 및 살론家の 존백작과 그의 아들인 버군디백작 사이에 룩스윌 修逆院에 關係 深刻한 戰鬪가 벌어졌다. 이 戰爭을 종식시키기 위해 聖루이스王은 당시 프랑스의 궁전안최 監督官이었던 에스끄랑의 제르바스를 파견했으며 그의 努力으로 平和가 招來되었다.

이 戰爭이 聖루이스王의 收拾으로 解決된 뒤 바르家の 티보트백작과 그의 妹未였던 룩셈부르크家の 헨리백작사이에 또다른 戰爭이 勃發했다. 이들은 프레니부근에서 接戰했는데 이 戰鬪에서 바르家の 티보트백작이 룩셈부르크家の 헨리백작을 生捕하는 한편 부인이 물려받아 헨리백작의 소유가 되어있었던 리그니城을 占領했다.

聖루이王은 두 사람을 和解시키기위해 自費를 들여 그가 가장 信任하는 챔벌린家の 피터경을 파견하여 聖루이王은 다시 講和를 이룩하는데 成功했다.

聖루이王의 일부 諮問官들은 그가 外國人들은 和解시켜준데 대하여 言及하여 聖루이王이 外國人들이 서로 싸움을 하도록 放置하지 않은 것은 賢明치 못하다고 主張했다. 왜냐하면 聖루이王이 그들이 스스로 疲弊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들이 富強할때 처럼 쉽사리 그를 功擊하지 못할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聖루이王은 그의 諮問官들의 말이 그르다고 對答했다. 聖루이王은『왜냐하면 만일 이들 隣接하고 있는 公侯들이 짐이 그들이 戰鬪하도록 放置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들은 머리 맞대고 모여 앉아 『聖루이王이 우리들이 서로 싸움하도록 放置하고 있는것은 惡意때문이다』라고 말할런지 모르며 그리하여 그들이 짐에 대해 惡感을 품

고 짐을 功擊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짐이 敗北당하는것은 勿論 『平和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神의 노여움을 사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이노라』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聖루이王이 和解시킨 버군디家와 로레인家는 그들이 相互간에 紛爭이 있을때에는 聖루이王앞에 나타나는것을 내가 라임, 파리 및 올린즈宮廷에서 目擊했을 정도로 聖루이王을 敬愛하고 그의 말에 順從했다.

[ 조인빌家의 著, 르네·헤이그訳 『聖루이王의 生涯』(워드앤드워드社刊, 뉴욕 1955)중에서 ]

### 意外之事에 대한 對備

프란체스코구치아르디니 ( 1492 ~ 1540 )

世上事는 매우 變轉無常하고 許多한 偶然之事에 좌우되는지라 將來에 관해 어떤 判斷을 내린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니 우리는 賢人의 予測마저 거의 恆常 誤謬로 判明되고만다는 것을 經驗을 통하여 알고있다.

그러므로 나는 將來事에 대한 恐怖때문에 設令 과히 훌륭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現在의 것을 斷念하는 者의 慎重性이 아니라 害惡이 아주 目前에 가까히 있거나 매우 確實한 것이 아닌限 보다 큰 害惡을 讚揚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두려워하는바의 것은 흔히 現實化되지 않는지라 그대들은 根拠없는 警戒心때문에 그대들에게 快樂을 부여해주는 것을 犧牲했다는 것을 깨닫게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事象이 또다른 事象을 招來한다 ( di cosa nasce cosa )는 것은 名言이다.

暴力이 아니라 漸進的인 衰盡에 依해 消滅될 運命을 타고난 事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버티어내는 수가 흔하 있는데 그것은 그 事物의 衰退가 期待했던 것보다 緩慢할뿐만 아니라 人間이 頑強하게 참아내는 경우에는 생각할수없는 일을 할수 있고 또 이를 이겨낼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饑餓 彈藥의 欠命, 戰費의 不足등으로 종식되지않을수없는 戰爭이 予想보다 훨씬 長期間동안 繼續되는것을 目擊하는 바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氣尽脈尽한 患者의 生命도 항상 醫師와 그 주위 사람들의 予想과는 달리 오랫동안 延命한다. 高利債에 조들리는 商人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버티다가 破産한다.

나는 언제나 무척 濶達한 性格이고 또 모든 詭辯과 생떼에 대해서는 한사코 反對하는 者이라 나와 協商하는 者은 어느누구나 항상 安穩함을 느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協商을 할 때에는 단숨에 가장 重要한 問題點을 다루려고 서두르지않고 이를 맨 마지막으로 미루었다가 相對方이 어쩔수없이 한발 한발 漸次的으로 이 問題에 끌려오도록 誘導하는 手法이 顯著하게 有益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이같은 策略을 쓰는 者은 어느 누구나 期待以上の 成果를 거두는 수가 흔하나 나처럼 일을 處理하는 者은 妥結이 可能하자면 없어서는 안될 것밖에는 얻지못한다.

그대들이 스스로 새로운 事業이나 協約에 어떠한 方式으로 말려드는가를 注意해보라. 특히 새로운 事業이나 協約을 하지않을수있을때 어떠한 方式으로 沒入하는가를 留心히 살펴보라. 人間은 이미 着手했기 때문에 물러설수없는 일을 그 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予想하긴했지만 이미 進展될데로 進展된지라 回避할수없는 일을 千辛萬苦끝에 겨우 解決하는 경우를 흔히 兇見할수있다. 이는

특히 反目 내용 및 戰爭에 該當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일들이나 또는 이와 類似한 性格을 가진 어떤 일에 加担 介入하기전에 아무리 많이 深思 熟考하더라도 지나칠것은 없는것이다.

나는 극히 聰明한 사람들이 어떤 重大한 일에 관해 決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때 그들은 거의 例外 없이 그 일이 取할수있는 여러가지 方向을 分類하여 두서너가지의 가능한 突發之事를 考慮한 뒤 그중 어느 하나가 發生할것이라는 根拠에 立脚하여 最終 決定을 내리는것을 目標해왔다. 그러나 이는 본받기에는 危險한 方法임을 注意하라. 왜냐하면 흔히 아니 거의 언제나 그대들의 考慮에 參酌되지 않았고 또 그대들의 決定에 들어맞지않는 第3, 第4의 突發事態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決定을 내리고자 할때에는 그럴성 싶지않은 일이 發生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될수있는 限 深思熟考의 範圍를 制限하지않는 것이 보다 安全한 方略이 되는 법이다.

[ 포란 체스코히 치아르디니 : 『隨筆集』 (S. F 베니 刊, 뉴욕, 1949) 중에서 ]

#### 協 商 에 대 하 여

프란시스 . 베이콘 (1561 ~ 1626)

一 般的으로 書面協商보다는 口頭協商이 더 낫고 直接 協商하는 것보다는 第3者의 仲裁를 통해 協商하는 것이 더 좋다.

書面 回答을 얻고자 할때라든가 自身의 書文을 提示하는 것이

事後의 辯明에 도움이 된다는가 또는 말을 가로채이거나 말이 斷片的으로 전달될 危險이 있을수있는 때에는 書面協商이 좋다.

一般的으로 下級者를 상대하는 경우와 같이 容顏이 尊敬心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라든지 이야기의 相對方 얼굴을 注視함으로써 자신의 눈동자가 그에게 어느 정도 行動해야 할것인가에 관해 方向을 提示해줄 수 있는 微妙한 경우라든지 一般的으로 自身에게 否認하거나 主張할수있는 自由가 있을 때에는 直接 協商하는것이 좋다.

심부름군을 選擇할때에는 他人의 일을 통해 自身에게 利益을 주는 것을 얻어내려고 꾀를 부리고 그리하여 報告할때에는 滿足할수 있도록 事實을 針小棒大하는 狡猾한 者보다는 所任을 제대로 遂行하여 그 成果를 忠實하게 報告할성 싶은 보다 純朴한 사람을 選擇하는 것이 좋다.

또 말은바 일에 積極的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부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의 進陟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忠諫을 위해서는 大胆한 사람을, 說得을 위해서는 말씨가 부드러운 사람을, 調査와 觀察을 위해서는 奸巧한 才士를, 좋은 成果를 낳지않는 일을 위해서는, 앞을 내다 볼줄 알면서도 条理가 사람을 扞하듯이 所任의 敵任者를 부리도록하라.

前에 그대들이 사람을 採用한 일에서 幸運이 있었고 그리하여 效果를 보았던 사람을 부리도록하라.

그렇게하면 自信感이 생겨서 그들은 그들의 法을 維持하기위해 努力할것이기 때문이다.

몇마디의 詰막한 질문을 던져서 놀래줄 意圖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用件에 달려들것이 아니라 協商의 相對方을 오모조모로 널리 打診해보는것이 좋다. 또 앞으로 食慾을 느끼게 될 사람보다는 당장 배가 고파서 食慾을 느끼고있는 쪽과 協商하는 것이 보다 有利하다. 만일 他人과 條件을 土台로 協商하는 경우에는 協商의 첫머리나 最初의 成果가 모든 것을 左右한다.

協商의 모든 要諦는 看破하고 궁리하는 것이다. 만일 그때들이 어떤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람의 性眞과 行態를 알아서 그렇게 誘導해야하며 또 그 사람의 目的을 看破해서 그러한 식으로 說得해야하고 그의 弱點과 不利點을 알아서 그런 식으로 怯을 주어야하며 또 그 사람에게 関心을 갖고있는 쪽들은 그렇게 支配를 해야 한다. 狡猾한 사람들과의 協商에서는 그들의 目的을 항상 考慮하여 그들의 發言을 해석해야하고 그들이 거의 바라지 않는바의 것은 그들에게 말하지않는 것이 좋다. 모든 어려운 協商에 있어서는 단번에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기를 期待할것이 아니라 일을 段階적으로 準備하여 結實을 맺도록하지않으면 안된다.

[ 『프란시스 베이컨의 隨想錄』 (클레렌던 出版社 옥스포드, 1890) 중에서 ]

가련한 리처드의 箴言

벤자민프랭클린

說得지키고자 한다면 理性이 아니라 利害關係를 들먹이라.  
必要는 결코 험값을 부르지않는 법.

不信과 警戒는 安全의 어버이이노라. 두번 삶은 고기와 和解한  
仇敵을 경계하라.  
敵이 없지않는 법이다.

約束은 親旧를 얻게해줄수있으나 約束 不履行은 그들을 敵으로 豹變시킨다.  
惡魔를 辱하는 者는 惡魔를 買収할것이다.

미쳐 날뛰는 황소에게 고삐를 메이지 못하는듯.  
狂亂하는 國方은 條約으로 拘束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울타리를 건어 짓하지는 말라.  
늑대는 1년에 한번 털갈이를 하나 性情은 결코 바꾸지는 않는다.

親友 대 親友로서 去來를 할때에는 親友之交가 끝가지 계속될수  
있도록 契約을 분명하게 그리고 書面化하라.

말은 한사람의 마음을 나타낼수 있고 行動은 그의 意圖를 表出  
할수 있다.

言과行은 相爭하고 離間한다.

慎重性없는 고운 마음씨는 큰 不幸이니라.

[ 폴·레이체스터·포드編集 : Poor Richaid's Almanacs for 1733

~ 1758 의 「 벤자민프랭클린의 序文 箴言및 詩文 」중에서 ]



## 慎重과 節制에 대하여

데이비드 흄 ( 1711 - 1776 )

野心滿滿한 強國 프랑스를 相對로 계속된 總力戰에서 英國은 선봉을 서 갔고 그럼으로써 英國은 아직도 그 地位를 維持하고있다.

英國의 富와 位置의 利點外에도 英國國民은 國民精神으로 生動하고 있고 政府의 惠沢을 完全히 認識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英國國民의 活力이 必要하고 止當한 大義各分の 경우 결코 衰及되지 않을것이라고 期待할수있다. 오히려 過去之事로 判斷컨대 英國國民의 熱誠은 다소 節制가 必要한듯하며 責望하며 마땅한 過小性보다는 稱讚해야 할 過剩性으로 因해 過誤를 저지른 경우가 보다 흔했다.

우선 첫째로 우리 英國은 分別性있는 近代政治思想에 이끌리기 보다는 古代 希臘人の 猜忌의인 競争에 사로잡혀왔던 듯하다.

英國의 對佛戰爭은 正當하고 必要한 理由에서 始作되었으나 頑固性和 熱情때문에 항상 過度하게 推進되곤했다.

1697년 리스비크에서 이루어진 講和와 同一한 內容의 講和가 훨씬 앞서 1692년에 提議된바있고 1712년 유틀레흐트에서 締結된 講和 역시 1708년 게르트뤼텐베르그에서 有利한 條件으로 締結되었을런지 모르며 또 英國은 1748년 악스라샤펠에서 기꺼이 受諾했던것과 동일한 講和條件을 1743년 프랑크포르트에서 배할수 있었을런지 모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英國의 拳臂의 對仏戰爭과 모든 公共 債務은 隣接國家의 野心때문이라기 보다는 英國 자신의 無分別한 固執에 基因하고있음을 알수있다.

둘째로 우리 英國은 너무도 公公然하게 프랑스勢力에 敵對하고있고 우리의 同盟國防衛에 너무나 苦心하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盟邦들은

항상 英國의 힘을 그들 자신의 힘인양 依存하고 英國의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戰爭을 해주리라고 期待하여 모든 合理的인 條件의 和解를 거부하고있다. 全世界는 英國의 露骨的인 氣質과 더불어 지난 議會開院初期의 下院의 派党的 議決이 헝가리女王으로 하여금 伸縮性없는 頑強한 講和條件을 固守하도록 만들었고 유럽의 全般的인 平穩을 즉각 回復시켜주었을 普러시아와의 協定締結을 妨害했다는 것을 알고있다.

셋째로 우리 英國民은 眞止한 勇士들이어서 일단 交戰을 하게 되면 자신과 後孫에 대한 關心은 一切 忘却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敵을 最大限으로 괴롭힐수있을까 하는것만을 생각한다.

우리가 補助者에 지나지않는 戰爭에 그토록 徹底하게 國益을 내걸고 參戰한다는 것은 確實히 가장 致命的인 妄想인바 政治를 알고 分別心을 갖고있다고 自負하고있는 國家쳐놓고 이같은 妄想에 젖은예가 아직 없다. 이같은 式으로 財政을 濫用하는 救援策은 설령 그것이 害惡이 아니라 어떤 救援策이 될수있다 하더라도 온갖 理由로 보아 最後의 極端的인 手段으로 留保되어야 마땅하며 最惡의 가장 切迫한 害惡이 아니라면 어떠한 害惡에 刺戟되어 이처럼 危驗千萬한 方法을 써서는 안된다.

이같이 無節制한 英國의 処身은 不利한것이며 이는 아마도 어느 면가에는 으레 그러하듯이 正反對의 極端을 낳아 유럽의 運命에 관해서는 完全히 등을 돌려 無關心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方面에서 加一層 不利하게 될런지 모른다.

希臘 國民중에서도 가장 수선스럽고 紛糾을 일삼는 好戰的인 國民이었던 아테네는 모든 싸움에 참견하는 過誤를 깨닫고 나서 外政 問題에 대한 關心을 完全 포기하고도 어느 편에 加担하여 戰爭에

參加하지 아니하고 다만 勝戰國의 脾胃를 맞추고 우근하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 데이비드 흄著 프레드릭 왓킨스 編纂 「政治論」의 「勢力均衡에 대하여」중에서 ]

### 政治關係와 戰爭

칼·폰·클라우제비츠 (1780 ~ 1831)

『……戰爭은 政治關係의 一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戰爭이란 그 自体 獨自의인 事象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戰爭이 諸國政府와 國民의 政治關係를 통해 비로소 發生된다는 것을 確實히 알고있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政治關係는 戰爭에 의해 斷絶되고 오직 戰爭 特有의 法則에 支配되는 完全히 相異한 事態가 뒤따르는 것으로 想定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戰爭이란 다른 方法이 混合된 政治關係의 連續에 불과하다고 主張하는 바이다. 다른 方法이 混合되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같은 政治關係가 戰爭 그自体에 대해 中斷되어 完全히 判異한 그 어떤것으로 變質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關係에서 사용되는 方法의 形態가 如何하던間에 政治關係는 本質적으로 存統하는 것이며 戰爭의 諸事態가 進行되는 토대가 되고 그 事態들이 附屬되는 主軸은 講和가 實現될때 까지 戰爭 全般을 貫流하는 政策의 全般的 變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동시에 主張하기 위함이다.

戰爭을 달리 어떻게 생각할수있단 말인가? 外交通牒의 中斷이 相異한 諸國民과 政府간의 政治關係를 中斷시키는것인가?

戰爭은 政治的 思考를 위한 다른 種類의 글과 말에 不過한것이 아닌가? 確實히 戰爭은 그 自体의 特有한 文法을 갖고있기는하나 그러나 그 論理는 戰爭에 特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戰爭은 결코 政治關係와 分離될수없는 것이며 만일 이 問題를 考慮함에 있어서 이같은 分離가 어떤 方法으로 행해진다면 모든 相異한 關係의 纖維는 斷絶되어 우리 앞에는 客体없는 無感覺한 物体가 놓이게된다.

設令 戰爭이 完全無欠한 戰爭 즉 完全히 아무런 拘束없는 敵對의 要素라 할지라도 이같은 種類의 思惟는 不可避 할것이다.

왜냐하면 戰爭을 左右하고 戰爭의 主要 特性들을 決定하는 모든 狀況 즉 戰爭의 힘, 敵軍의 힘, 彼我雙方의 同盟國, 彼我 雙方 國民과 政府의 特性등등..... 이러한 것들은 政治的 性格의 것이며 總體的인 政治關係와 密接한 關聯性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들을 分離시킨다는 것은 不可能한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우리가 眞摯한 戰爭이란 推象的인 觀念에 따를때 宜當 그러해야하는것 처럼 어떤 하나의 極端으로 기우는 徹頭徹尾한 努力이 아니라 그 自体 矛盾 이기는 하나 獨自的인 法則을 따를수 없고 政策이라는 全體의 一環으로서 考察 되지않으면안되는 混合現象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같은 見解는 더욱 不可避해진다.

一般的으로 人生에 있어서 事物을 觀察하고 判斷하는 올바른 觀點을 찾아내서 그 觀點을 固守하는 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가지 觀點을 통해서 비로서 事象의 集團을 統一性있게 把握할수있는 것이며 우리가 矛盾을 犯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것은 오직 한가지 觀點의 固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戰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兵士의 眼目으로,

다음은 行政家의 眼目으로, 다시 政治人의 眼目으로, 등등..... 의  
式으로 事物을 考察하는 2重, 3重의 觀点을 갖는것이 容認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提起되는 問題點은 政策이 반드시 最高至上의  
것이며 그밖의 다른 모든 것은 이에 從屬되는것이나의 與否이다.

政策은 合理的인 考慮의 問題點이 무엇이던간에 本質的으로 內政과  
나아가서는 人間의 모든 利害關係를 統一하고 調和시킨다는 것을  
前提로 한다. 政策이란 本質的으로 他國에 대한 이같은 모든 利  
害關係의 단순한 表明과 主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政策이 그릇된 方向을 取하여 統治者의 野心 個人的인 權益 및  
威權을 不當하게 增進시킬수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關心을  
갖는바가 아니다.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戰爭術은 政策의 教師로 看  
做될 수 없으며 여기에서는 우리가 政策을 오직 共同体全體의 全般  
的인 利害關係의 代辯으로 考案할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唯一한 問題點은 戰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순수한 軍  
事的 觀点(만일 이같은 觀点을 생각할수있다면)이 政治的 觀点에  
優先하느냐 換言하면 政治的 觀点이 完全히 無視되고 軍事的 觀点  
에 從屬되어야하느냐 아니면 政治的 觀点이 계속 支配的인 觀点이  
되고 軍事的 觀点은 이에 從屬하는것으로 看做되어야하느냐는 點이  
다. 戰爭이 始作되면 政治的 觀点은 完全히 消滅되어야 한다는  
見解는 現實의 戰爭은 앞서 言及한바와 같이 政策 自体의 表現  
내지 發顯에 不過한지라 오직 순수한 憎惡心으로부터 나오는 死生決  
斷의 戰爭과 같은 싸움에서나 생각할수있는 것이다.

政治的 觀点的 軍事的 觀点에의 從屬은 常識에 어긋날것이다.

왜냐하면 政策이 宣戰布告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政策은  
知的 機能이며 戰爭은 그 手段에 불과한것이요 그 反對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軍事的 觀点의 政治的 觀点에의 從屬함이 可能的 일이다……

아름든 이같은 觀点에서 볼때 事物의 本質上 政治的 利害關係와 軍事的 利害關係간에는 더이상 必然的인 갈등이 존재하지아니하다.

그러므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그 갈등은 不完全한 認識때문인 것으로 看做되어야하다. 政策이 스스로 対応하지도 못하는 戰爭을 要求한다는 것은 政策은 그것이 使用하고자하는 手段를 知悉하고 있다는 前提에 違背될것이며 따라서 自然的이고 必復不可欠한 前提에 背取될것이다. 그러나 만일 政策이 軍事的 事態의 到來를 正當하게 판단하는 경우 그 事態는 어떠한 것이며 戰爭의 偉大한 窮極的 目的에 가장 有利한 事態의 方向은 어떠한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은 全的으로 政策의 任務이다.

하마디로 말해서 戰爭術은 그 最高의 觀点에서 볼때 文書를 作成하는 것이 아니라 戰術을 遂行하는 政策임이 疑心할바 없다.

이같은 見解에 따를때 重大한 軍事的冒險이나 이를 위한 計劃을 순수한 軍事的 判斷과 決定에 맡긴다는 것은 容認될수없는 特性이며 나아가서는 不利하기까지 하것이다. 事實 戰爭에 관한 計劃을 職業軍人和 相議하여 그들이 內閣 (=政府) 이 应当히 해야함바에 관해 순수한 軍事的 見解를 提示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것은 不合理한 方式이다. 그러나 더 한층 不合理한 것은 動員可能的 戰爭手段 明細書를 獎軍앞에 提示하여 그가 戰爭이나 또는 이같은 手段과 符合하는 作戰을 위한 순수한 軍事的 計劃을 作成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 理論家들의 요구이다. 또 一般的인 經驗은 우리들에게 오늘날에 있어서 軍事術의 多樣多岐한 分野와 科學的 性格에도 불

구하고 戰爭에 관한 主要 大綱은 항상 內閣에 依하여 즉 專門  
的인 用語로 말한다면 軍事機構가 아니라 政治機構에 依해 決定  
된다는것을 가르쳐 주고있다.

이는 극히 當然한것이다. 戰爭을 위해 要請되는 主要한 計劃  
처놓고 그 어느 하나도 政治關係에 관한 考察없이 수립될수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現實的으로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戰爭  
遂行에 대한 政策의 不利한 影響을 云謂할때 그들은 載實上 그  
들이 意圖하는바와는 매우 相異한 그 어떤 것을 云謂한다.

허물을 탓해야할 것은 이같은 影響이 아니라 政策 그 自体인  
것이다.

만일 政策이 옳다면 즉 政策이 目的을 達成하는데 성공한다면  
政策은 戰爭에 대해 有利하게 作用할수있다.

만일 政策의 이같은 影響이 目的으로부터의 乖離를 招來한다면  
그 原因은 오로지 政策의 過誤性에서 究明되어야함것이다.

[ 칼·폰·클라우제비츠著 『戰爭論』 ( 옥스앤드, 와이 맨社刊  
런던, 1968 ) 중에서 ]

### 獅子와 표범

이반크리토프 (1769 - 1844)

아득한 옛날

獅子와 표범이 설사이없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하찮은 덩불 동굴, 樹木, 이러한 것들을 놓고 그들은 亂鬪를 벌였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그들은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은채.

이같은 種類의 問題에 있어서는

強者는 흔히 盲目인 법.

그들은 자신의 威容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터이라.

勝者가 모든 權利를 享有한다.

그러나 結局 毎日같이 싸움만을 하고 있을수는 없었다.

발 이 닳아 없어지고 말터이니!

두 將領수는 싸움을 그만두기로 決定했다.

好戰的인 行동을 一切 中止하고

모든 問題點을 解決하여

그리하여 예나 마찬가지로

다음에 싸울 때까지

恆久的인 講和를 맺기로 했다.

『싸움을 그만 둡시다..!』

서로 秘眷를 指名합시다. !』

포범이 獅子에게 이같이 勸誘 하고 둘이 合意하는데로 내버려

두기로!



예컨대 고양이를 봅시다

그는 전혀 虛勢를 부리지 않는다오.

그러나 나는 그를 挾하겠오. 그는 매우 良心的인 녀석이나.

그리고 그대는 고매한 짐승인 나귀를 挾할수있소. -

내 한마디로 斷言하노니

소가운데 나귀만큼이나 高尚한 녀석은 거의 없소.

친구인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의 자문관과 誅官도

나귀의 발굽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오.

그대도 알게 되리라.

나귀가 나의 善良한 늑은 고양이와 妥結하는 바를 승인하도록  
합시다.

獅子는 표범의 計劃이

씩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귀만은 안되겠네

그를 대신하여 이같은 談判을 해줄 者는 여우이어야만 돼. -

獅子도 世上事를 꾀히 알고 있었던지라 -

그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敵이 稱讚하는 친구는 自身에게 크게 有益하지 못하느니라!』

[버나드, 페너스訳. 『크리로프의 偶話集』중에서.]

제퍼슨大統領에게 보낸 켈라틴財務長官의 稟翰.

1807년 10월 21일

閣下. 侍生은 侍生이 反對하는바가 內容이 아니라 그 全般的인 精神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閣下의 考慮를 위해 어떠한 修正案을 稟申해야 좋을지 罔知所措하여 閣下의 稟翰을 여느 때보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습니다.

閣下의 稟翰은 侍生에게는 國內外에서 거의 普遍的으로 容認되고있고, 現在의 流動的인 狀況이 요구하는듯한 聲明書의 형식으로 씌여진 것이 아니라 戰爭을 目前에 두고 英國을 相對로 宣布된 宣言文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는 公正한 處事가 거부될것 — 이는 公式的인 交信에서는 豫想할수없는 結果입니다만 — 이라는 確信을 갖도록 해석되거나 武力에 대한 호소에 의해 諸問題點이 問題化되기를 熱望하고있는 것으로 曲解될런지 모릅니다. 豫想되는 回答이 이 問題를 決定지어줄 것이 거의 確實하기는 합니다만 豫期치 못한 狀況이 이 問題의 討論을 遷延시키거나 또는 英國政府가 閣下의 最後通牒에 대해 確實한 応答을 함이 없이 閣下의 裁可를 必要로 하는 某種의 受諾可能的인 새로운 立場을 취하여 最終的인 妥結을 遷延시킬런지 모릅니다. 제아무리 微弱하다 하더라도 名譽로운 妥結의 希望이 남아 있는 限 行政首班의 어떠한 措置도 不和를 擴大하거나 英國의 矜持를 不必要하게 損傷시킴으로써 妥結의 希望을 霧散시키는 傾向을 띄지않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侍生

은 현재의 型態 그대로의 書翰에 의해 某種의 有益하고 重要的 目的이 達成되지 못하는限 그 全體的인 語調과 表現을 婉曲하게 하고 議會의 最初의 審議를 돕고 議會의 早期會議召集의 이유를 說明하는데 필요한것 以外의 內容을 插入하지 아니하며 條約의 不批准과 관련되는 憤怒以外에는 旧怨을 더 이상 敷衍하지 말며, 英國側의 絶對的인 不正義를 前提로 하는 듯한 또는 우리側의 교만을 是認하는 듯한, 開戰가능성이 극히 질다는 信念을 表現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某種의 重大한 目的을 達成할수있는 可望이 보이지 않는限 이같은 것은 損害를 가져올수있으며 어떤 實質的인 利益을 낳을수없기 때문입니다.

本 書翰의 目的이 議會에 대해 필요한 臨戰準備를 갖추도록 促求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같은 目的은 懸案 問題의 蓋然性이 아니라 不確實性을 土台로한 直接的이고 強力한 勸告에 의해 達成될수있을 것입니다. 그 目的이 議會로 하여금 早期의 宣戰布告를 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역시 時期尚早인듯하며 이는 英國政府의 回信이 通報되는 適切한 時期에 效果的으로 行해질수 있을 것 입니다. 美國의 憲法에 따르면 行政首班은 충분히 慎重을 期하지 않고 開戰勸告나 煽動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으며, 더구나 무엇보 다도 議會가 採擇하지 않으면안되는 措置의 正確한 形態와 時期가 아직 충분히 檢討되고있지 않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그 形態의 選擇은 아마도 우리 美國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事實입니다. 英國은 우리가 選擇할런지모를 戰爭一步前의 어 며한 報復措置보다는 차라리 實戰을 願할것이라고 侍生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選擇을 어느 정도까지 英國에 맡기는 것이 適當하느냐

하는 것은 最小限 檢討의 가치가 있습니다. 國外의 輿論은 우리에게 극히 貴중한 것이며 國內의 輿論은 不可缺少한 것입니다. 만일 開戰의 理由가 英國이 榭서피크港의 蠻行을 否認하지않거나 이에 대한 賠償을 거부하는데 있다면 우리는 全世界의 눈앞에 普遍的으로 名分이 설 것이며 또 美國民으로 부터 한결같은 支持를 받을것입니다. 그러나 侍生은 만일 英國이 蠻行을 否認하거나 補償을 한다면 우리는 매우 엄청난 反對에 봉착할것이며 또 英國이 船員에 관한 懸案의 協定을 체결하기를 거부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如前히 宣戰布告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만일 英國이 원한다면 그들이 宣戰을 開始했다는 비난을 받도록하는 戰爭一步前의 措置가 適切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이같은 非常事態下에서는 이같은 政策이 懷疑的이어서 決定的인 措置가 바람직하게 생각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 時期의 問題는 매우 眞摯한 檢討를 필요로 합니다.

이 달에 和戰兩端의 問題가 決定될것이라는 느낌이 들고있는 狀況下에서는 即刻的인 攻撃作戰을 준비하느니 보다는 이를 深思熟考하는 것이 慎重한 處事라고 생각됩니다. 開戰 즉시 攻撃을 加하는 것은 疑心할 餘地도 없이 重要한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現時點에서 戰爭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結論은 나오지않습니다. 캐나다에 關한限 우리의 臨戰準備狀態를 고려할때 今年 가을보다는 겨울이나 내년 이른 봄에 侵攻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며 容易하게 征服될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增授軍은 春

계에는 몬트리올에 도착할수 없으며 하물며 캐나다北部에는 더욱  
進駐할수없는지라 그 以前에 캐나다가 우리에게 征服될것입니다.  
퀘벡에는 正常的 往來가 可能할수 있는 季節以前에 增授軍이 投  
入될것이 確實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側面에서 볼때 即刻的인  
攻擧으로부터 아무런 利益이 招來하지않으며 宣戰布告가 다소 遲  
延된다하더라도 不利할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밖의 다른 모든  
側面에서 볼지라도 英國이 금년 가을에 實戰을 開始하지않는 것  
이 우리에게 有利하며 이와 똑같은 理由로 英國이 實戰이 궁극  
적으로 不可避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實戰을 開始하는 것이 그들  
에게 有利하기 때문에 侍生은 우리가 즉각 宣戰布告를 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英國民과 英國政府및 駐美英國관리들이 그 決定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結果를 不確實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英國側의 作戰은 우리의 艦艇拿捕, 防備가 허술한 우리의 港口  
에 대한 攻擧및 캐나다防衛가 主宗을 이룰 것입니다. 美國側으  
로서는 우리의 商業을 保護하거나 英國艦隊에 對抗할수없기 때문  
에 우리의 攻擧作戰은 海上에서는 私掠船에 局限되어야 할것이며  
우리가 防衛할수없는 艦艇은 可能한限 끌어들어 놓아야 하고 港口  
는 단지 海上攻擧을 擊退시킬수있는 狀態로 整備해야 하며 臨時防  
禦를 위해 民兵隊를 組織하는 한편 常駐防禦나 攻擧을 위한 軍  
隊 즉 志願兵을 徵集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本質的인 臨戰準備들이 어느面에서 거의 着手되지않고있

으며 모든 면에서 不完全한 實情입니다. 즉 甚大한 量에 達하  
 는 우리의 中國 및 東印度貿易이 아직 實現되지 않고 있으며 兵  
 士가 전혀 徵集되어 있지 않습니다. 事實 民兵隊募兵以上으로 實用  
 性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民兵隊의 徵集이나 編成改善 또는 正  
 規軍이나 志願兵募集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議회의 승인  
 을 얻지 못하며 그 實施를 위해서는 時間을 必要로 하고있으며  
 뉴욕에 構築할 것을 構想하고 있는 砲臺도 아직 着手되지 않았  
 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뉴욕의 어느 곳에서도 臨時 城壁마저 着  
 手되지 않았으며 거버너즈島 (訳註: 뉴욕港 East River 南端에  
 위치한 陸軍要塞地) 에는 거의 大砲조차 備置되어 있지 않습니다.  
 閣下의 書翰에서 특히 防備가 허술하다고 指摘되어 있는 그밖의  
 다른 2個 海港의 機能이 어느정도 發展되고 또 構想중인 그밖  
 의 다른 모든 港口의 砲臺를 위해 必要하다고 말씀하신 經費支  
 出增加가 어느정도 進陞되었는지 侍生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開戰을 서두르기 앞서 事情이 許諾한다면 短時日內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같은 合理的이고 實用性있는 防禦手段을 마련  
 하는 것이 本質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英國이 그  
 들의 回信이 戰爭을 誘發시킬런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 意外  
 의 命喪을 示達하여 소수의 艦艇을 과견할 可能性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議회가 11월에 宣戰布告를 한다면  
 美國에 와있는 英國海軍艦隊가 겨울전에 뉴욕을 占領하여 市民  
 에게 軍稅를 부과하는 것을 부 것으로 막겠습니까? 이같은 不幸

에 부수되는 恥辱은 참으로 클것입니다. 특히 行政首班은 外侵에 대해 그로록 對備가 되어있지 않는데도 即刻的인 開戰을 촉구 했다는 彈劾을 받기 쉬울것입니다. 그리고 運 좋은 行政府는 거의 被害를 당할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不利한 事態는 예외없이 그 人氣를 망쳐 놓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습니다.

市民個個人에 대한 莫甚한 損害는 姑捨하고라도 來年 歲入 가운데 최소한 300萬弗은 뉴욕市 商人들이 引受하는 公債에 依存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問題의 모든 面에서 볼때 侍生은 戰爭을 名譽롭게 回避할 수 없는 경우라면 臨戰準備를 最大限으로 갖추어서 猛烈하게 戰爭을 遂行하되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소 時間的 餘裕를 더 벌수 있고 남은平和의 可能性을 維持하도록 잘 計算된, 동시에 閣下의 行政府의 總體的인 體制와 가장 符合할수있도록 계속 言行에 慎重을 期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 헨리, 애담즈編 : 『앵버트, 켈라틴의 文集』중에서 ]

## 파랑이

한스·크리스찬·안텔센 (1805—1875)

薔薇나무 한 그루가 창가에 서있었다. 바로 얼마전만해도 장미나무는 푸르고 싱싱했었는데 이제 시들하게 보이니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한무리가 장미나무에 陣을 치고 이 장미나무를 먹어 치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탐욕스럽긴했지만 그 무리는 매우 氣稟있고 高尚했다. 그들은 산뜻한 푸른制服을 입고있었다. 나는 『파랑이들』중에서 한 놈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지 불과 3일밖에 안되었지만 벌써 할아버지였다. 그가말한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는 그자신과 무리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건 모두 사실이죠. 자 들어 보시오!

『우리는 世上에서 가장 新奇한 생물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고서는 곧 결혼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알을 낳습니다. 조그마한 알들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누워집니다. 生物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한 생물인 개미(우리는 개미를 가장 존경합니다)는 우리를 理解해주고 또 높이 평가합니다.그는 우리 알을 단번에 먹어 치우지않죠. 그는 우리의 알을 가져다가 一層의 家族개미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번호를 매겨서 나란히 그리고 겹겹이 쌓아서 每日 새로운 썩이 알을 깨고 나올수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개미는 우리들을 우리안에 처넣고 뒷다리를 자르고 나서는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牛乳를 짜아냅니다. 개미는 우리들에게 꼬마젓소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개미처럼 常識을 타고난 모든 生物은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죠.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지않는 것은 오직 人間뿐입니다. 人間은 우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이를 크나큰 侮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全生涯에 苦痛을 줄 만큼 큰 侮辱입니다. 그대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를 꾸짖는 抗議文을 써주지않겠습니까? 人間이 우리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깨닫도록 覺醒시켜 주시지않겠습니까? 人間은 푸르른 온갖 植物을 먹고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장미꽃잎을 먹는다는 理由로 그토록 광기어린 눈초리로 때로는 멍청하도록 우리들을 노려봅니다. 정말 人間은 우리들에게 가장 侮辱的인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싫습니다. 구역질을 느낍니다. 정말 입에 올릴수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制服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항상 制服을 입고있습니다!」

『나는 장미꽃잎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온 무리가 장미나무에서 살고있죠. 事實 우리는 장미나무와는 떨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아니 장미꽃나무가 生物중에서 比較的 높은 地位에 속하는 우리들안에서 살고있습니다. 人間은 우리들을 좋아하지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로 와서는 비누거품으로 우리를 죽인답니다. 비누거품은 정말 고약하지요! 지금도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에 씻기위도록 태어나지않았는데도 물에 씻겨야한다는 것은 몹서리치는 일입니다. 至蠢한 비누거품 눈동자로 우리를 노려보는 그대 人間들이여! 自然속에서 차지하고있는 우리들의 位置를 생각해보시라; 우리는 장미나무에서 태어나 장미나무에서 죽으니 우리의 全生涯는 한 편의 詩입니다. 그대들이 가장 賤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입에 올리는것조차 참을수없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지말아주세요. 우리를 개미젖소, 나 薔薇나무무리, 또는 꼬마파랑이로 부르지요!』

나는 자리에 서서 장미나무와 그 꼬마 파랑이 — 이녀석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파 어린 놈이 딸린 大家族인, 장미나무市民의 하나인 이 녀석의 感情을 상하게 하고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이들을 씻어내어 죽일 생각으로 들고온 비누거품을 쳐다보았다. 이제 나는 이 비누거품을 비누방울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련다. 자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누방울마다 童話가 있나보다. 비누방울이 커지니 마치 그 속에 眞珠라도 박힌듯 반짝인다!

비누방울은 후들거리며 커지다가는 門으로 날아가 터져버렸다.

그러나 門이 활짝 열리니 거기에 童話婦人 ( Dame Fairy Tale ) 이 서있지않은가! 그녀가 나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말해줄것이다 — 나는 그 꼬마 파랑이 이름을 말하고 싶지않으니

『나무벌레야!』라고 童話婦人은 말했다.

『우리는 事物을 그들의 올바른 이름으로 불러야한다. 그러나 만일 항상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면 적어도 童話에서나마 그렇게 부르는 榮光을 누리지 않으면 안된다.』

〔 맥밀란出版社刊 『안데르센의 童話集』중에서 〕

대담한 말 그러나 단지 말에 不過한...

로버트. 세실경 ( 1864 )

大戦을 記憶하고있는 사람들은 英國이 適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危殆이나 約束을 貫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으려하지 않았던지라 유럽으로서 극히 重大한 많은 協商에서 英國의 主張이 尊重과 主目を 받았다. 英國이 어떠한 語套로 그 意見을 開陳하건, 그 意見이 英國의 어느 政治家의 口에서 나온 것이건간에 各国外相들은 그들의 國家가 必要한 경우 나폴레옹을 敗退시킨 艦隊와 위털루에서 勇戰한 軍隊의 支授을 받으리라는 것을 결코 잊지않았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이같은 狀態가 一變하고 말았다. 外國의 定期 刊行物에 조금이라도 接觸수 있거나 外國社會의 巷間의 이야기들. 조금이라도 들어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英國의 位置에 관한 外國人의 觀念에 大變革이 일고있음을 깨닫게 된다. 유럽의 諸會議에 있어서의 英國의 影響力도 사라졌다. 英國의 影響力의 土台를 이루었던 物質的 國力의 名聲이 하루아침에 蒸發하고 만것이다. 이제 英國은 從來 그들의 魔力에 絶對 복종했던 國家들에게 조그만치의 感銘도 주지 못하고있다. 英國外交官들은 最小限 從前과 다름없이 活躍하고있다. 그들의 觀察力은 예나 다름없이 날카롭고 그들의 關與 역시 如前히 실사이 없으며 그들의 語調는 隆盛期보다 한층 대범하고 교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힘을 부여해주었던 動力은 사라지고 말았다. 傲慢無禮한 言動에 威嚴이 서리게 해주었던 軍事的 強國이라는 英國의 面目이 이제는 더이상 相對方에게 威壓感을 주지 못하고 있다.

英國의 威壓的인 言動은 자기들에게 엄습하고있는 暴風은 대담無雙한 말이긴하나 그러나 단지 말에 불과하다는 確信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無力한 屍身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思想變化의 主体가 되는 사람들이 그 原因을 究明해보는 것도 價值가 있을런지 모른다. 우리가 이같은 思想變化는 國家的 性格의 어떤 真正한 變化에 대한 正當한 根拠를 갖지못한 것이라고 제 아무리 自慰하더라도 英國에 대한 外國의 世評이 우리들에게 無關心事 일수는 없다. 自衛能力과 決意를 갖고있다고 알려진 國家는 攻擧를 謀免할수있다. 필요하다면 싸우겠다는 決意가 不足하거나 그 決意가 突風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때의 激情에 依存하는 경우라면 戰爭을 投機하는 政治도박사들이 侵略事業에 投資하려는 마음을 갖게되리라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경멸을 自招하는 政策은 보다 큰 實質的인 被害를 입게 마련이다.

[ 솔즈베리 후작 ( 로버트 . 세실 경 ) 隨想集 『 對外政治學 』 中에서 ]

#### 테어도어 . 루즈벨트의 金言

테어도어 . 루즈벨트

몬로독트린은 國際法은 아닙니다. 本人은 몬로독트린이 언젠가는 國際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外交政策의 精髓로 存続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效果的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意志와 힘을 갖고 있는限 이것이 必要한것은 아닙니다. 國民여러분! 이 점은 극히 重要하고 또 美國民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點입니다. 本人은 衷心으로 信奉하고 있으며 또 大多數의 國民여러분도 이를 信奉하고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本人은 美國이 몬로독트린을 내세우고 떠들어대기 보다는 이를 拋棄하게 되기를, 그러면서 몬로독트린을 侵犯하려는데 關心이 汲汲한 強大한 外國의 列強으로 하여금 이를 尊重하게 할수있는 唯一한 最後의 手段인 效率的인 戰鬪力의 增強에 失敗하지 않기를 바라고싶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그러나 용동이는 큰것을 들고다니라. 그러면 効驗이 크리라』는 俗談이 있습니다. 만일 美國民이 말은 부드럽게 하되 完璧하게 效率的인 海軍을 건설하여 그 훈련을 最高度로 유지한다면 몬로독트린은 多大한 效果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 1903년 시카고에서 행한 테어도어 . 루즈벨트大統領의 演說中에서 ]

## 好意的 讓步의 回避에 關하여

에리 . 크로

어떤 國家의 獨立을 위태롭게 하는 危險은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軍事的인 能力과 經濟的인 效率性을 갖추고 있으며 自國의 國境線을 擴張하거나 그 影響力을 膨脹시키려는 野心을 가진 國家가 인접지역에서 갑자기 대두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이같은 危險은 그 隣接國家의 國力과 效率性 그리고 그 野心의 自然發生性 즉 『不可避性』의 정도에 正比例하고 있음을 歷史는 立証하고 있다.

그러한 位置에서부터 나오는 政治的 優位의 남용行爲를 견제할 수 있는 唯一한 防止策은 항상 그와 對等하게 強力한 敵對者의 對峙나 또는 數個의 國家들의 提携에 依한 防衛同盟의 결성뿐이었다. 같은 勢力의 結集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均衡은 專門的으로는 勢力均衡이라고 불리워지는바 英國의 長期的인 政策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影響力을 行便하되 항상 一定한 時點에 있어서 가장 強盛한 國家나 勢力集團의 政治的인 專橫에 對抗하는 便에 加担함으로써 이같은 勢力均衡을 維持하는 것이었음은 거의 歷史的으로 自명한 事實이 되고 있는 바이다.

……이와같은 專橫을 갈망하는 如何한 國家에 對해서도 英國이 不可避하게 取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反對立場은 거의 自然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一般的 法則을 어떤 特定の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一定한 時點에 있어서의 強力하고도 野心的인 어떤 國家가 英國에 對해 自然的이고도 必然的인 敵對的 位置에 서게 될 것인가의 與否를

糾明해볼 수 있는바 獨逸의 現狀을 이같은 方法을 통해 檢討해볼  
까 한다.

이같은 研究를 실시할 경우 그것은 獨逸이 다른 나라들의 犧牲  
과 피해의 代價위에서 순수한 獨逸膨脹主義計劃을 추진시키고 國際  
政治舞臺에서의 獨逸의 優越性을 構築하려는 目的아래 실제로 政治  
的 主導權의 장악을 目標로 삼고있는지의 與否를 考察하는 형태를  
띄지않으면 안된다.

만약에 獨逸外交政策의 모든 確認된 事實들에 부합되는 한 理論  
을 樹立하고 이를 인정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될 境遇 다음 두가  
지 假說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獨逸이 分明히 政治的 主導權과 制海權의 確立을 노리면서 隣接  
國家들의 獨立과 궁극적으로는 英國의 存在를 위협하고있다는 假定 :

獨逸이 上記와 같은 뚜렷한 野心은 없고 現在로선 國際會談에서  
의 한 주요 強大國으로서의 合法的인 地位와 影響力의 行使만을  
念頭에 두고 對外通商促進, 獨逸文化 래택의 전파, 国力伸張,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平和的인 機會만 부여된다면 全世界的으로 獨逸의  
새로운 利權을 確保하려는 데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發生  
하는 重大變化로 인해서 現在 獨逸領土가 아닌 地域에 대해 어  
떤 直接的 政治行動을 取하게 될 경우에 現存하는 政治的 條件下  
에서 이와같은 行動과 關聯을 가진 다른 나라들의 既存權利를 侵  
害하지않고 獨逸로 하여금 이 行動의 相當部分을 負擔하도록 하는  
일이 없지않을까 하는 問題는 不確實한 未來가 結定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假定 :

이중 어떤 경우에도 獨逸을 可能한限 強力한 海軍力을 建設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上記의 두가지 方案은 既存事實들에 對한 說明을 困難하게 만드  
는것 처럼 보인다. 이 方案들은 좁은 方案들일뿐만 아니라 確實  
히 採択하기가 容易하지도 않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英國政府가 獨逸政策에 關한 上記한  
2個의 理論중에서 어느것을 受諾할 것인지를 明確히 決定해야 할  
實際적인 必要性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治世術의 도움을 전혀 안받은 것은 아닌 準獨自의 進  
化의) 第2假說이 어느 段階에 가서던지 第1假說, 즉 意圖的 計  
劃에 吸受될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進化의 假說이  
實現된다고 假定할 境遇 이로 因해서 獨逸은 全世界에 相當한 威  
脅을 가져다 줄것으로 보이는 地位를 차지하게 될것이 分明하며,  
이것은 『惡意』를 가지고서 그와 같은 地位를 고의적인 征服手段  
으로 차지하는것에 못지않은 威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明白한 要因으로서 대두된 危險의 要素들  
도 비록 약간의 偽裝下에서나마 第2의 假說에 吸受될 수 있다고  
도 볼 수 있을것이며, 實際적이건 또는 潛在적이건 間에 그러한  
危險을 배경으로 할 境遇 全般的인 行動路線은 이미 指定된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의 經驗이 將來의 길잡이가 될 수있다고 본다면, 獨逸은 말  
할 것도 없고 어떤 強大國과의 永久的 關係改善을 가져다주지 못  
할것이 거의 確實할뿐만 아니라 따라서 반드시 포기하지않으면 안  
될 하나의 길이 있다.

즉 이 길이란 英國의 好意的 讓步에 依해서 닦아진 길, 다시  
말해서 그러한 讓步의 正当性이나 또는 그와 對等한 相對的 讓步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確信도 없이 주는 讓步를 말

한다. 그와같은 好意的 讓步를 통해서 獨逸의 『軟心』을 사고 獨逸을 더욱 友好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期待는 결단코 버려야 한다. 그러나 無責任한 사람들, 지난 20年間の 英-獨關係史에 대해 無知한 사람들은 아직도 순진하게 그와같은 期待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20年間の 英-獨關係의 歷史야 달로 好意的 讓步에 관한 組織的 政策의 歷史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說明이 되며 이 政策은 兩國間의 現存緊張狀態를 거의 永久化시킨 극히 失望的인 結果밖에 가져다 주지 못했었다. 스스로 많은것을 알아야 하고 事實을 事實대로 直視해야 할 責任 있는 地位에 앉은 사람들은 이 問題에 關하여 결코 환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戰爭의 原因에 關한 英國文書 1898-1914』中 1907年1月 1日字 「에리. 크로」의 外務省備忘錄中에서]

### 「커즌」의 「로잔느」會議活躍相

「해롤드. 니콜슨」

英國의 위신을 3大陸에서 回復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커즌」 外相을 英國의 歷代外相중에서 가장 흥미있고 複雜한 外相의 한 사람으로 등장시킨것은 그가 在任 마지막 3年동안에 英國의 外交政策을 눈부시게 지도했기 때문이었다.

「로잔느」會議는 그의 명성을 다시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自信感을 다시 갖게 해준 會議이 기도하다. 「로잔느」會議를 処理한 그의 솜씨는 有能한 外交術의 한 古典的인 實例로서 항상 남아있게 될것이다. . . .

1922年11月17日 「런던」을 떠나는 「커즌」外相에게는 英國外交의 명예를 回復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至上目的 以外の 모든것은 副次的인 것이었다. 이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當時 全世界가 (옌진 그르진 간에) 英國과 「터키」간의 핵심적 問題點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3個 問題에 있어서 그가 成功을 거두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이 3個의 問題點들이란 첫째 海峽의 航海自由, 둘째 「모술」問題, 셋째 「앙고라」와 「모스크바」간의 同盟 등이었다.

萬若에 「커즌」外相이 이들 3個의 戰略的 問題들을 確保만 한다면 勝利는 그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만일 그가 실패할 경우 英國의 위신이 回復되기 까지에는 數年の 期間이 더 걸리게 될 것이다.

勝負는 그에게 너무나 不利한 것이었다. 그는 그가 도저히 물리칠 可望이 없어보이는 3가지의 強力한 確信을 가지고 會議에 임하는 「터키」代表團을 상대해야만 하는 立場에 있었다.

「터키」側의 이 3가지 確信이란, 첫째 「터키」는 世界의 征服者이며 征服者가 원하는 平和를 「터키」가 要求할 수 있다는 確信이었다.

둘째는 「터키」의 同盟國이 소련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同盟國이 될 것이라는 確信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로이드·조지」와 「처칠」을 물러나게 한 英國國民들이 어떠한 경우이고간에 「터키」의 要求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確信이었다. ....

이 보다는 더욱 困難한 것은 「커즌」外相이 國內에서마저 소수자의 支持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英國新國들은 「커즌」外相이 英國의 國民輿論으로부터 무거운 壓力을 받고 있다는 事實을 全世界와 「터키」代表團에게 선전하고 있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보나.로」首相內閣은 어찌할바를 몰라 서 주저하고, 態度가 不分明하며, 氣가 죽고 당황하며 지지부진한 行動을 取하고 있었다. 「커즌」外相은 會議開幕 바로 다음날에 記述하기를 『이것은 길고도 必死的인 鬪爭』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아무런 武器도 아무런 支援도 받지 못한채 싸움터에 혼자 나간것이다. 그는 自身の 成功에 對해서 거의 아무런 自信도 가 질 수 없었다. 그는 會議 2日째에 그의 婦人에게 보낸 便紙에 서 『나는 내가 首相이 되거나 또는 首相戰에 적합하리라고는 결 코 생각하지 않소. 이곳에서는 成事에 失敗할 可能性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의 株價는 떨어지게 될것이오,.....』라고 말했 었다.

「커즌」의 큰 長點은 자기 스스로도 充分히 自信하고 있는 바 이지마는 自信의 傑出性에 있다. 그는 최소한 會議의 初盤만이라 도 자기가 먼저 司會를 맡는것이 절대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다. 그가 먼저 司會를 맡을 경우 그는 앞으로의 事態進展을 制 御할 수 있게될뿐만 아니라 자기의 人格을 일단 과시하기만 하면 그의 이와같은 主導權 장악이 英國의 위신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 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그의 제일 첫째 措置이자 가장 重要한 措置인지도 모르는 戰略的 措置를 實現하는데는 심각한 難關 이 가로놓여 있었으니 즉 「스위스」領土에서 開催되는 會議는 「스위스」인이 司會를 맡아야 한다는 規則이었다. 그러나 「스위 스」政府도 심사숙고끝에 마침내 그와같은 영예를 포기할것에 동의 했다. 그리하여 「파리」에서開催된 協商結果 司會는 『이 會議를 마련한 強大國등』의 嚴格한 輪番制, 즉 다시 말해서 英國, 「프랑 스」 및 「이탈리아」의 順으로 할것에 合意를 보았다.

그러나 「커즌」外相은 완전무결한 術策으로서 이 輪番制司會를 따돌리는데 成功한 것이다. 그는 開幕式 以後부터 열리는 會談에서는 『會議를 마련한 強大國들』의 『首席』代表가 司會를 맡는다고 맨처음부터 宣言해 버렸다. 이같은 發表에 對해서 그 『首席』代表의 資格이 어떤 根拠에 依한것인지 質問을 던지는 代表는 감히 한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節次問題를 決定하는 第2次 本會談부터는 「커즌」外相이 司會棒을 쥐게 되었다. 그는 會談을 3個의 委員會로 구성할것을 提의했다. 그는 第1委員會에서는 領土問題를 討議하고 자신이 委員長에, 第2委員會에서는 降伏文書와 少數民族問題를 討議하며 委員長에는 「이탈리아」의 「마르케세.가로니」가 그리고 第3委員會는 財政 및 經濟問題를 討議하고 「프랑스」의 「M. 바베르」가 委員長에 취임할것을 提의하면서 『本會談은 極히 드물것』이라고 말했다.

「커즌」外相은 이어서 重要한 代表者들이 이들 3個委員會의 討議에는 모두 參席해야 하기 때문에 3個委員會의 會議를 同時에 所集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第1委員會 會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 『委員會에서 약간의 進展이 있을때 까지 다른 2個委員會의 會議는 當分간 休會』할것을 提의했다.

그는 아주 泰然自若한 態度로 또렷하고 妥當性이 있는듯한 순진한 行動을 보이면서 그와같은 提의를 했기때문에 다른나라 代表들은 다음날 아침에 議事錄을 읽고서야 「커즌」外相이 그들도 感嘆해 마지않은 교묘한 手段으로써 會議의 議長職을 逸占했다는 事實을 깨닫게 되었다. 事實 그다음 부터는 『本會談』은 더 열리지 않았다. 會議는 항상 委員會會議 形態로 계속되어 나갔다.

그리고 3個의 委員會 가운데서도 「커즌」外相이 委員長으로 있는 委員會가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重要な 利点이었다. 議事日程의 作成과 開催時間은 이 委員會에서 決定되었다. 여기서도 「커즌」外相은 남이 따를 수 없는 노련한 能力을 十分 발휘했다. 그는 「터키」가 劣勢의 立場에 있는 問題들부터 먼저 討議되도록 하는 한편 「터키」가 強勢의 立場에 있거나 또는 소련의 支援을 期待할 수 있는 立場에 있는 問題들은 뒤로 처지도록 議事日程表를 作成했다. 이렇게 해서 會議가 보다 細部的인 問題들에 對한 討議에 들어갈때 좁혀서는 「커즌」外相은 완전히 個人的인 權位를 確立하고 「유럽」強大國들의 結束力을 과시하는 한편 어떤 角度와 어떤 態歷로서 「터키」代表團과 協商을 벌여야하는지를 이미 把握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事實들을 念頭에 둔 그는 첫 討議議題를 トラ키아領土 問題로 할것을 결정했다. 그의 이러한 議題선택과 완전무결한 會議運營方法은 그의 戰略的技巧의 代表的인 例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討議事項을 考察해볼 必要가 있다.

「터키」를 처음부터 難處한 立場에 몰아넣거나 또는 처음부터 「유럽」強大國들의 結束力을 과시하는 데는 トラ키아 領土問題以上으로 더좋은 議題는 없었다. 「터키」의 「이스메트·파샤」는 東部 トラ키아뿐만 아니라 西部 トラ키아 領土도 要求하는 한편 약 10年前에 「터키」가 상실했던 한 「유럽」地方 領土의 반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파리」協商과 Territet 協商의 약속에 따라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터키」의 그러한 要求에 反對하는 同時에 「그리스」, 「루마니아」

및 「유고슬라비아」도 「터키」의 그와같은 「유럽」膨脹을 許容해  
서는 않된다는 확고한 態度를 취하고 있었으며, 더욱기 前에 「터  
키」의 同盟國이었던 「불가리아」까지도 어느 時期에 가서던 「불  
가리아」自身이 回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유럽」地方 領土의  
그와같은 處理에는 다른 「발칸」諸國과 함께 「터키」에 反對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커즌」外相은 11月 22 日에 열린 第 1 次會談에서 「이스메트·파  
샤」에게 「터키」의 要求事項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파샤」는 東部 트라키아 全部뿐만 아니라 1915 年에 「터키」  
가 「불가리아」에게 割讓했던 「카라카치-데모티카」地區의 반환도  
요구했다. 그는 또한 西部 트라키아 地域에서의 國民投票실시도 要  
求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및 「루마니  
아」가 반대하고 나섰다. 「커즌」外相이 이와같은 反對에 대한  
「파샤」의 答辯을 要求하자 그는 答辯을 保留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커즌」外相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이 마침내 展開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스메트·파샤」에게 그  
가 다음 會談 때까지 答辯을 保留함으로써 會議의 進行을 遲延시키  
지 말아줄것을 要請하면서 強大國들이 기꺼이 讓步할 수 있을 정  
도의 「터키」國家政策의 범위내에서만 要求條件을 제시하고 도저히  
讓步가 不可能한 要求條件들을 고집함으로써 協商을 難關에 몰아넣  
지 말아달라고 은근히 권고했다. 그는 이어서 東·西트라키아 領土  
의 歷史와 現在의 狀態에 關해서 빠르면서도 조리있게 설명하고  
聯合國側과 「유럽」強大國들이 西部 트라키아 領土問題를 協商對象  
物로 삼는데 쉽게 同意할 수 없는 理由를 要約해서 제시했다.

다음 會談에서 「이스메트·파샤」는 極히 要領不得한 長文의 答  
辯을 낭독하면서 트라키아에 非武裝地帶을 설치하는 可能性에 關

해서 지나가는투로 몇마디 했다. 그러나 「파샤」가 미처 깨닫기도 前에 「커즌」外相은 「파샤」가 것처럼 有益한 『提案』을 한 데 대해 뜨거운 감사를 보내고 「파샤」가 『提案한』 非武装地帶設置의 地圖作成을 위해서 「웨이간드」將軍을 委員長으로 하는 한 專門分科委員會를 즉시 構成할 것을 제의했다. 「파샤」는 非武装地帶設置原則에 그가 꾀없이 발이 묶이게 된 이와같은 電光石火式의 手法에 對해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만 멀뚱히 뜨고 있었다.

「커즌」外相이 이 최초의 作戰에서 實質적으로 얻은것이 무엇인가? 그는 會議가 開議되기가 무섭게 행한 그의 첫 연설에서 英國과 全世界의 輿論이 지나치고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 「터키」의 要求條件들을 「파샤」로 하여금 먼저 提案하도록 誘引했던 것이다. 이 提案은 「앙고라」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 그것은 「터키」가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第3次 「발칸」戰爭까지 야기시켰을지도 모를 要求條件이었다. 「커즌」外相은 「유럽」이 團結力과 毅然한 決意를 보이는데 있어서 無能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터키」에게 과시하는 同時에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日本,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및 한때 「터키」의 同盟國이었던 「불가리아」까지도 「터키」의 反對勢力으로 규합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남이 따를 수 없는 해박한 知識은 물론 놀라운 정도의 討論術로써 會議를 圧倒하고 個人的인 權위를 確立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스메트·파샤」를 정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多情多感하게 對하는가 하면, 또 어느때가서는 엄숙히 尊崇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非武装地帶設置에 關한 原則에 마치 「터키」測 提案의 핵심內容인것 처럼 보이도록 일을 처리했다. 또한 「커즌」外相은 「이스메트·파샤」의 최대 弱點, 즉, 그가 「터키」의 다른 代表團員들과 오랜 事前協議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発言이나 提案에 對해서도 答辯을 제대로 못하는 弱點을 이용했다.

〔「해롤드·니콜슨」著 『커즌—最後의 段階 1919—1925』(「휴튼·미플린」社刊 1934) 中에서〕

## 「로이드·조지」 外交

고든·크레이그

「로이드·조지」는 職業外交官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 그는 職業外交官들이 사용하는 方法, 특히 그들이 公式書翰과 조심스럽게 作成한 覚書들을 통해서 相互간에 意見을 교환하는 취미까지도 경멸했다.

『나는 「프랑스」와 우리가 相互간에 書翰을 교환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로이드·조지」는 1920년에 말했다. 그는 이어서 『書翰이란 바로 악마이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어떤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거던 相對者를 만나 직접 이야기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相對者에게 편지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로이드·조지」首相은 職業外交官에게만 會談을 일임한다는 것은 좋지않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次大戦中에 행한 한 發言에서 『外交官들이란 단지 時間낭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自己 나라를 代辯할 資格도 없는 사람들에게 (重大事의) 討議를 맡긴다는 것은 時間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말들은 그가 단지 농담삼아서 한 말은 아니다. 「로이드·조지」는 重大한 外交政策問題들은 職業外交官들이 아니라 國民의 受任權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協商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數年間 계속된 「파리」 平和會談에서 이와같은 方法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1919年 以後의 期間을 전통적인 外交方式에서 벗어난 『會談外交』時代로 轉換시킴에 있어선 그가 가장 強力한 영향력을 가진 受任權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며, 또 一般國民들이 『낡은 外交方法』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생각은 더욱 굳어져 있었다. 「로이드·조지」의 努力의 덕택으로 첫 몇해동안의 平和時期에는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獨逸」 및 그밖의 여러나라 政治指導者들이 정중한 談笑나 會談을 통해서 「파리」 會議에서 제기된 民族送還, 安保, 「유럽」 經濟恐慌, 對 「러시아」 關係 및 기타問題등을 완전공개리에 討議했다. 이와같은 會談들은 外交會談때 마다 전통적으로 늘 使用되어온 場所와는 동떨어진 「칸느」 「산·레모」, 「스파」 및 「제노아」 등 아담하고 판에박은 곳에서 벗어난 場所에서 개최되었다. 뿐만 아니라 會談이 여러나라의 首都에서 열릴때에도 비록 職業外交官들이 초청될 경우일지라도 그들이 많이

초청되는 일은 없었다.

「로이드.조지」의 會談外交는 一般國民들이 바라는 『새로운 外交』에 부응한 것이며, 또한 그는 믿을 수 없는 職業外交官들의 거처장스러운 참가로 會議의 효과가 파괴되는 것을 願치 않았었다. 하다못해 外相의 참가가 會議을 臆동산이 會談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外相도 英國代表團의 構成에서 除外되기가 일수였다. 그 한 實例로서 1922年의 「제노아」會議를 들 수 있겠다.

英國外務省의 資源과 經驗에 대한 이와같은 고의적 無視는 1919年부터 1922年 사이에 「로이드.조지」外交가 거둔 빈약한 外交成果에서 즉각 반영되었다. 「로이드.조지」首相의 步行活動이 거둔 成果를 보건데 會談外交란 『지금까지 나타난 外交方法 가운데 가장 不幸한 外交方法인지도 모른다』는 「니콜슨」의 주장을 크게 정당화 시켜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로이드.조지」는 晝翰을 싫어했기 때문에 會議는 議事日程과 節次에 관한 事前會意나 또는 會議에서 討議할 精確한 討議議題도 定하지 않은채 개최되는 일이 많았다.

「로이드.조지」와 다른 나라 指導者들은 自國의 政治指導者들로서 外國에 오래 체류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會議는 時間的으로 中대한 制限을 받기 마련이며 이것은 事前會意나 또는 協議도 없는 점과 關係해 볼때에 이런 會談에서 어떤 구체적인 成果를 기대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로이드.조지」나 다른 나라 指導者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會議참가에 앞서서 一般國民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일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會議에서 어떤 具體的인 合意를 본것처럼 보여줄 必要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은 實際로는 強大國家간에 날카로운 無止한 의견대립이 存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合意와 進展을 이룩한양 그럴듯한 聲明을 발표하고 가장 具體的인 成果도 없는 會談을 끝맺곤했다. 그 一例로서 民族送還問題에 관한 12回의 國際會議에도 불구하고 말썽많은 이問題에 關係서는 어떤 進展이 있었다고 아무도 確答할 수는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國際會議의 主要成果는 英國과 「프랑스」의 政策들이 數次에 걸쳐서 公開的으로 서로 충돌하는 한편, 이러한 충돌이 兩國 가운데 어느 한편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 妥協을 통해서 각국

한 타결을 보게 되었고 또 이 妥協은 英國에게 있어서는 「프랑스」에게 不當한 의심을, 그리고 「프랑스」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 이 분노가 급기야는 1923에 「루르」地方에 대한 運命的인 占領으로 폭발한대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리라.

어떤 會議들은 軌道에서 완전히 벗어나 英國과 「프랑스」의 代表들을 다같이 當황시킬 정도로 予想밖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로 했다. 이것은 특히 1922年에 열린 「제노아」會議를 古例로 들 수 있다. 이 會議는 「프랑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對蘇問題를 處理할 時期가 성숙했으며 「유럽」 強大國들은 이를 통해서 「유럽」의 모든 重要經濟問題들을 處理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로이드.조지」의 주장에 의해서 소집되었다. 그러나 이 會議는 애초의 선전과는 달리 오래 계속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會議에서 거둔 唯一한 구체적 成果도 獨逸과 蘇聯을 「라팔로」에서 劇的인 和解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유럽勢力均衡」의 重大한 變化라는 暗影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協商國』간의 反目を 더욱 擴大시킨 이 會議는 또한 「로이드.조지」 外交方法의 欠陥때문에 影響을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會議開幕에 앞서서 『公開外交』와 『世界輿論의 動員』이라는 말들이 상당히 나돌고 있었으며 이 會議의 進行을 위해서 構成된 各分科委員會의 討議內容을 國際輿論에 충분히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위한 이와같은 讓步가 이루어 지긴했으나 특히 政治的 性格을 띤 各委員會들은 별로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大多數의 會議參加國들이 除外된 가운데 한 편에서는 「로이드.조지」의 宿所에서 親英國係 소수國家들이 秘密會談을 개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가지 通路를 이용해서 蘇聯을 中心으로한 소수의 다른 國家들이 秘密會談을 개최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秘密會談에는 獨逸이 참가하지 못했다.

獨逸은 그들의 희생아래 蘇聯이 『協商國』들과 結束할것을 우려하여 「차커린」이 獨逸에게 제시한 提案들을 수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會議는 互解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바로 1年前에 『「로이드.조지」의 外交에는 耳目도 너무 많고 秘密도 너무 많다』고 비판 「그레이」경의 조소가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 고든 A. 크레이그, 펠릭스. 길버트共編 『外交官 1919-1939』 ( 프린스턴大學校出版部刊 1953 ) 의 『英國 外務聲』중에서 ]

## 國際的 和解

### 켈로그·브리안條約

#### 第 1 條

條約締結當事國들은 國際紛爭을 해결하기 위해 戰爭에 호소하는 것을 규탄하며, 他國과의 關係에 있어 自國政策을 실현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戰爭을 포기함을 國民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 第 2 條

條約締結當事國들은 各國間에 발생하는 紛爭을 해결함에 있어서, 그 분쟁의 성질과 경위를 막론하고 반드시 平和的 方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데 合意한다.

#### 第 3 條

本條約은 前文에 明示된 條約締結當事國들에 의해 各國 憲法節次에 의거 批准되며, 모든 批准文書가 워싱턴에서 寄託되는 즉시 發効한다.

本條約은 前節의 節次에 따라 發効하는 경우, 餘他的 모든 國家들에 의해 遵守되도록 開放될 것이다. 本條約을 遵守하려는 國家의 意向을 증명하는 모든 文書가 워싱턴에 寄託되는 즉시 이 條約은 그 國家와 本條約締結當事國들 사이에 發効한다. ...

### 켈로그·브리안條約에 대한 公式的 解釋

日本: 日本外相(田中)이 美國大使(맥베)에게 보낸 覚書(1928年 5月26日자)

本人은 戰爭의 全廢를 모색하며 이 目的達成을 위해 진지한 協力を 提供코자하는 美國提案의 高매한 日標에 日本政付가 贊意를 표시하고 있음을 貴下에게 通告하는 바입니다.

美国側提案에는 獨立國家의 自衛權을 否認하는 條項이나, 또는 國際聯盟規約 및 로카르노條約에 구현된바와 같은 公共平和保障의 義務와 兩立할 수 없는 條項은 아무것도 包含되지 않은 것으로 思慮됩니다. 따라서 日本政付는 論議되고있는 條約을 위해, 言及된 6個國에서 討議를 갖는 경우 相互間에 受諾될 수 있는 條約案에 대한 全員一致의 合意가 이룩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英國：英國外相 ( 챔벌레인 ) 이 美國大使 ( 휴턴 ) 에게 보낸 覺書 ( 1928年 5月 19日 자 )

[ 拔萃文 ]

4. 美國側案 第1條의 內容을 검토한바, 英國政付는 이 條項이 한 國家가 自衛權의 發動을 위해 不得히 취하게 될지도 모르는 措置를 排除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켈로그씨는 自衛權이 양도할 수 없는 것임을 明白히 했으며, 英國政付는 이 문제에 관해 條約案에 追加가 必要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10. 國家政策 실현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戰爭을 拋棄하는데 관한 第1條의 語句를 감안, 世界에는 그 地域의 福祉와 保全이 우리의 平和와 安全에 특별하고도 중요한 利害關係를 가진 一定地域이 있음을 本人은 貫下에게 想起시키고자하는 바입니다. 英國政付는 과거 이러한 地域에 대한 간섭이 容認될 수 없다는 立場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攻擊으로부터 이들 地域을 防禦하는 것은 英國에게는 自衛手段인 것입니다. 英國政付는 本 條約이 이러한 點에서의 行動의 自由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確히 諒解하면서 이 새로운 條約을 받아 들인다는 것이 明確히 理解돼야 할 것 입니다.

美國政付도 이들과 비교될 수 있는 利害關係를 갖고 있으며, 外國이 이 利害關係를 無視하는 경우 이를 非友好的 行爲로 간주할 것이라 美國政府는 宣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英國政府는 自身の 立場을 천명함에 있어 美國政府의 意向과 뜻을 代辯하고 있는 것 입니다.

獨逸：獨逸外相 ( 슈트레제만 ) 이 美國大使 ( 슈어맨 ) 에게 보낸 覺書 ( 1928年 4月 27日 자 )

〔拔萃文〕

獨逸政付는 美國政付가 제출한 案에 따른 條約은 自身을 防禦하려는 한 國家의 主權을 問題삼으려 하지 않는다는 確信을 前題로 니다. 한 國家가 本 條約을 違反하였을 때 다른 條約締結當事國들이 그 國家에 대한 措置의 自由를 되찾게 되는 것은 自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條約違反의 影響을 받는 國家는 平和破壞者에 對抗, 武器를 드는 것을 저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獨逸政付로서는 이 種類의 條約에, 條約違反時의 경우를 明示할 必要가 없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美國：美國政府가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獨逸, 英國, 印度, 아일랜드自由國, 이탈리아, 日本, 폴란드, 뉴질랜드, 및 남가등 各國政付에게 보낸 覺書(1928年 6月23日자)

〔拔萃文〕

自衛：反戰條約의 美國側案에는 어느모로나 自衛權을 制限하거나 저해한 條項이 全無합니다. 自衛權은 主權國家에 固有한 것이며 모든 條約은 이를 暗示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國家는 언제나, 또한 條約規定에 侵略을 防禦하는 自由를 갖고 있으며, 그 國家만이 自衛權發動을 戰爭에 호소해야 할지의 與否를 결정지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讓渡할 수 없는 이 權利를 條約明文으로 인정하는 경우, 侵略을 定義하는 과정에서 舛착하는 것과 동일한 難關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自衛權을 規定할 때 생기는 문제는 侵略을 規定할 때 생기는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떠한 條約規定도 自衛라는 當然한 權利에 대해 附言할 수 없는 限, 條約文에서 自衛의 法的概念을 明示한다는 것은 平和를 위해 利로운 것은 아닌바, 無法者들이 사건을 합의된 定義에 부합토록 造作한다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美國：(美上院外交委員會報告書：1929年 1月14日자)

本委員會는 自衛權이 條約의 規定이나 條件에 의해 어느모로나 制約

받거나 저해당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諒解아래 本 條約에 關係 報告한다. 모든 나라는 언제나 또한 條約規定에 相関없이 自由로 自衛權을 發動할 수 있으며, 當該만이 自國의 自衛權發動의 要件, 必要性 및 範圍를 判斷할 수 있다.

美國은 「몬로·독트린」을 美國의 安全과 防衛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本 條約에 의해 許容된 自衛權에는, 美國防體制의 일부인 「몬로·독트린」을 유지하는 權利가 반드시 包含돼야할 必要가 있다. 本委員會는 한 걸음 나아가, 本條約이, 明示的이거나 暗示的이거나를 莫論하고, 制裁를 規定하지 않고 있다고 諒解한다. 本條約調印國이나 本條約遵守國이 本條約을 違反하는 경우, 다른 本條約調印國들에게는 本條約違反國家에 대해 制裁措置나 強制措置를 취해야할 義務나 책임이 (明示的이거나 暗示的이거나를 莫論하고) 없는 것이다. 本條約違反時에는 다른 本條約調印國이 本條約에 의거 本條約違反時에 대해 갖는 責務가 免除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本條約은 이의 施行을 위해 이를 違反하는 國家에 대해 武力이나 強制措置를 使用할 것을 (明示的이거나 暗示的이거나를 莫論하고) 考慮하고 있지 않다. 自衛權發動이외의 경우가 아니면 戰爭에 호소하지 않으며, 國際的 紛爭은 平和的인 手段에 의해서만 해결토록 모색한다는 것은 各國의 自發的인 盟誓인 것이다. 또한, 만약 한 國家가 本條約을 無視하고 이를 違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措置의 效果는 그 國家에 대한 本條約의 惠沢이 消滅하며 다른 國家들과 그 國家 사이의 條約關係가 消滅하는 것이 然

[ 1928年8月27日 파리에서 체결되고 1929年1月15日  
美上院의 批准을 거쳐 1929年7月24日 公布된  
『戰爭拋棄一般條約』중에서 ]

## 내용 會談

안토니·이든

戰爭을 몇년씩 겪으면서 「유화」라는 語句에 대한 論爭이 벌어져 왔다. 熱戰 國際的 긴장을 緩和시키고 平和를 촉진시키는 企圖라 解釋될 수 있는 이 語句를 원래의 뜻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褻瀆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語句는 侮蔑的인 뜻도 지니고 있다. 協商에서의 諸般企圖自体는 나무랄수 없는 것이지만, 協商의 結果가 보다 큰 後患을 무릅쓰고 目前의 小利를 追求한 것이 되지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만일 後患의 要因이 同盟國의 희생으로 조성됐다면 이같은 目前의 해결추구책은 더욱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같은 경우에는 利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協商결과가 후에 가서는 潛在的 侵略者를 利롭게 만들었음이 判명되는 수가 자주 있다.

따라서 本人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상대로 協商을 企圖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들의 保障을 無批判的으로 신뢰하는 것은 確實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스페인內戰期間중의 한 때 民主國家들은 곳곳한 姿勢를 보일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慶賀할만한 것이었다. 1937年 8月중, 地中海에서는 商船에 대한 공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격사건은 潛水艦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해 8월말 발렌시아 南쪽 60일의 海上에서 英國 海軍驅逐艦 1隻에 대한 공격이 있었으나 失敗로 끝난 사건이 발생했다. 理論上으로는 이들 潛水艦은 스페인國籍의 것이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動員된 潛水船數는 스페인海軍이 이같은 行動을 취하기에는 너무 많은 數이었는데, 몇週가 경과함에 따라, 약 50척의 이탈리아海軍潛水艦이 무솔리니의 명령에 따라 地中海에서 商船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이탈리아의 목적은 스페인의 발렌시아港口 및 바르셀로나 海口의 封鎖였으나, 合法的으로 航海하는 여러 國家의 船舶들을 격침하는 結果가 나타난 것이다.

英國과 프랑스 政府는 이 같은 事態를 黙過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地中海를 哨戒하는 計劃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 哨戒計劃을 실시함에 있어 英·仏 2個國家가 主要부담을 맡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했으나 이 (니용) 會議로부터 有用한 支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인데, 무솔리니는 얼마 동안 주저한 끝에 不參기로 결정했다.

海上哨戒艦艇들에 대해서는, 非스페인船舶을 공격하는 潛水艦에 發砲하도록 命令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으며, 또한 니용會議參加國 (9個國) 潛水艦은 自國의 水上船舶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地中海에 出動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다. 이 哨戒任務를 確實히 遂行하기 위해 英國海軍은 驅逐艦 35隻, 프랑스海軍은 28隻을 出動시키기로 했다.

니용 (訳註: 제베바 北쪽 13마일 떨어진 제베바호반에 위치) 에서 열린 會議에서는 이 같은 提案에 대한 合意를 보았다. 무솔리니에게 이 의내용이 通告했으며, 그가 원한다면 이탈리아海軍에서도 哨戒임무를 실시할수 있는 티레니아海를 포함한 한海域을 割當했는데, 本人이 후에 畧述한 것 같이 『이 提議는 狹소主義者들의 威信에 알맞는 廣大한 海域을 무솔리니에게 提供하여, 그로하여금 자기의 軍艦으로 자기의 潛水艦을 추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탈리아가 이 提議를 선뜻 받아들여라 期待하지 않았으나, 이 提議는 恫정의 根柢를 이룰수 있었으며, 우리의 立場은 強更한 것이었다』

이 경우, 니용會議가 聯合國海軍에 내린 訓令은 完全히 成功的인 것이었다. 그날로 이탈리아潛水艦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적어도 그같은 形態의 地中海에서의 海賊行爲는 끝이 난 것이다. 니용會議가 48시간만에, 諸般합의에 도달하고 必要한 조처를 취한후 幕을 내린 것은 결코 적은 成果가 아니었다.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와 같은 弱小國家들의 支授는 意義가 컸으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이리하여, 수에즈로부터 지브랄타르, 다르다넬레스로부터 지브랄타르, 그리고 北아프리카諸港口로부터 마르세이유에 이르는 主要地中海通商船路를 合力하여 哨戒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措置는 英·仏海軍力이 地中海에서 越等히 優勢했기 때문에 可能했다는 點이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30年代에 있어 우리 英·仏 두 나라外交의 어려움이란 우리가 그같은 힘의 條件을 토대로 삼아 조처를 취할 機會가 좀처럼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회를 발선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機會를 모색하는 것이 外交官의 責務인 것이다.

[후버戰爭革命平和研究所 第50週年記念會議 (1969) 를 위해 준비된 안토니·이든 (아본백직) 의 『平和工作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 및 將來를 위한 提言』중에서]

체코슬로바키아 : 원해 다음에 온것 (1939년 3월)

다니엘 . 엘스버그

...유리窓門을 뚫고 들어가는것과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警報장치의 취약점이 뚜렷하게 英國과 프랑스인 것으로 浮刻된 것은 아니었으며, 두나라가 이번에도 다시 同盟國들의 抗議를 무마시키려 하지않을 것 같았다. 그들의 公約을 履行하도록 그들에게 촉구하는 항의의 부르짖음이나 다루기 어려운 騷動도 없음이 확실하다. 안슐루쓰 (Anschluss) 의 경우와 같이 既定事項로 만들기 위해서는 占領이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져야 했는데, 抵抗은 全然없을것이라는 展望을 제반조건은 시사했다. 抵抗받지 않는 占領에는 聯合國을 警戒시킬지도 모르는 大規模動員이 필요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에서와 같이 베르마흐트는 單一對抗國에 대해 勝利를 견을수 있었을 것이나, 그는 抵抗과 抗議를 받지 않고 지체없이 견을 수 있는 勝利를 보장할 수 없었다. 盜難警報頒配給을 끊고, 또한 聯合國의 反射作用을 鈍하게 만들며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베르마흐트는 勝利를 全적으로 다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侵略을 發行하기 위해서는 히틀러는 이미 오스트리아에서 시험해본 『賢명한 武器』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체코슬로바키아國家元首를 결정적으로 협박하는 軍事計劃에서 이들武器가 不過 몇시간이면 效果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이라 믿었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恐喝방법에서의 히틀러의 判斷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여튼간에 그의 계획은 순조로히 進行되는 것 같았다. 그 같은 短時間에 필요되는 絶박한 印像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는 直接對面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獨逸軍이 勳員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1939년 3월 14일 그는 하차체코슬로바키아大統領과 츠발코프스키外相의 베를린방문이 요청된다고 通告했다.

하차大統領은 이 베를린방문에 그의 딸을 看護員으로 同伴했는데 그는 나이에 비해 더 老衰했으며 健康도 몹시 나빴었다. ……國家元首로서의 마지막 몇時間동안 그는 당연한 모든 禮遇를 받았다. 베를린 駅에는 그의 查閱을 받기 위해 儀仗隊가 도열하고 있었으며 리벤트로프도 하차大統領 令愛에게 줄 꽃다발을 안고 駅에 나와 있었다. 아들론·호텔에서는 히틀러의 副官이 總統으로부터의 禮物인 초콜레트箱子를 그의 딸에 전했다……… 츠발코프스키外相은 리벤트로프와 豫備會答을 가진 후, 하차大統領에게 急激한 事態發生은 없다고 報告했다. 드디어 다음날 새벽 1시, 긴 여행을 마친 이老大統領은 히틀러와의 會見을 위해 總統府로 招致됐다. 總統府 앞뜰에서 하차大統領과 츠발코프스키外相은 親衛隊의 환영을 받았는데 우렁찬 軍樂이 울리는 가운데 이들은 親衛隊를 查閱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들은 히틀러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 갔는데 이 자리에는 괴링, 리벤트로프, 카이텔, 바이츠작커눔을 비롯 다른 首腦들이 陪席하고 있었으며 히틀러앞의 卓子위에는 晝名을 기다리는 書類가 놓여 있었다.

히틀러의 通譯官 파울·슈미트는 당시의 光景을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방안에는 몇개의 靑銅燭台에 꽃힌 등불이 壁體의 검은 板子들을 비치고 있었으며 그날밤의 悲劇에 알맞기라도 하는듯 不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히틀러는 입을 열었다. 그는 하차大統領에게 遠路 그를 방문

토록 요청해야만 했던 것을 未安하게 여긴다면서, 獨逸軍의 對 체코슬로바키아攻擄이 時間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旅行은 그의 나라를 위해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지지 않고 있는 베베스(Benes) 精神을 痛罵하면서 여러 排發行爲(이날 獨逸의 新聞들은 뮌헨때와 똑같이, 獨逸學生들이 구타당했으며, 獨逸人 婦孺가 강에 던져졌다는 등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獨逸人학대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를 들어 詰難하고, 『왜 체코슬로바키아는 軍隊를 온당한 규모로 줄이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미 獨逸軍에게 進軍命令을 내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獨逸共和國에 合併하도록 한 것이었다.

슈미트는 하차大統領과 츠발코프스키外相이 『히틀러가 말하는 동안 돌(石)로 변한 것 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만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히틀러의 입으로부터 靑天霹靂의 終末이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마치 靑天霹靂과도 같았으리라』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왜 兩人을 베를린에 불렀을까? 히틀러가 兩人에게 最後의 宣言을 들려준 그날 아침 6시(즉 5시간후)에는 獨逸軍 侵略이 시작되기로 되어있었다. 히틀러는 『두 가능성이 있었다. 獨逸軍의 進駐로 戰亂이 발생하는 것이 첫째 가능성이다. 抵抗은 모든 可用武力手段으로 분쇄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獨逸軍의 進駐가 平和視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이 경우 總統으로서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 相當한 정

도의 自立과 自治 그리고 일정한 範圍의 自由를 베를 아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對抗을 시도할 경우 報復은 自動的인 것이었으며, 選擇은 체코  
슬로바키아에 달려 있었는데, 사실 이는 히틀러의 손을 벗어난 문제였다.

『만약 來日 전투가 발생하면 이틀안에 체코軍隊는 抵抗을 멈  
추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 獨逸軍兵士도 戰死할 것이나, 이 경우 憎惡感이 조성  
돼, 自己保存의 動機에서 自治를 不得히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 招請은 체코슬國民에게 베를수 있는 마지막 好意이다.  
만약 戰端이 발생한다면 流血로 인한 우리의 憎惡心은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차大統領의 방문으로 최악의 사태는  
회피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6시가 되면 獨逸軍은 進發을 개시한  
다. 체코軍 1個大隊를 獨逸軍 1個師團이 상대할 것이다. 이作戰  
은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여유 있게 계획되어 온  
作戰이다.』

그러나 4시간 여유를 두고 어떻게 全체코國民들에게 抵抗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차大統領은 反問했다.  
히틀러는 그에게 프라하로 電話를 걸도록 慫慂했다. 『決斷이  
필요한 決定일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長期平和의 黎明  
의 可能性을 볼수있을 것이다. 만약 결정이 對抗을 위한 것  
이라면, 체코슬로바키아人的 全滅이 초래될 것이다.』라면서.

하차大統領은 獨逸軍의 侵攻目的이 체코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것인지를 물었다. 이 武裝解除는 아마도 後日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히틀러는 말했다). 히틀러는 文書에 署名하고 자리를 떴다. 두 체코人は 다만 괴링 및 리벤트로프와 마주 앉게 되었다. 獨逸側會議錄은 이 討議내용을 재치있게 省略하고 있다. 그러나 헨더슨이나 콜롱드로의 記擧와 슈미트의 회고록에서 자세한 토의내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슈미트에 부과된 임무는, 하차大統領이 당시 개최중이던 체코 政付閣議에 대해 重大訓諭를 내릴 수 있도록, 프라하와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매마침, 프라하와 연결된 電話線이 故障나 있었다. 『神經質인 리벤트로프는 나에게 누가 故障를 수리하러 가겠는가 알아보라고 말했다』 슈미트가 알아낸 것은 프라하에서 응답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리벤트로프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즉시 郵政相을 자기에게 직접 데리고 고향쳤다. 나는 만약 失敗할 경우 내 목숨이 달아날 것으로 알고 무진 애를 썼다』 방안에 있던 하차大統領과 츠발코프스키外相은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됐다. 그들은 文書를 外面, 署名을 거부했다. 『만약 우리가 이에 署名한다면 우리는 우리 國民들로부터 永遠히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이 들은 말했다.

그러나 獨逸側首腦들은 卓子에 늘려 붙여 文書를 내밀고 兩人의 손에 쥐어주면서 『署名하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프라하의 반이 두 시간안에 空襲으로 破허가 되고 말것ियो』라고 고향쳤다.

괴링은 하차大統領에게 『당신들의 아름다운 都市를 파괴할 의향은 없소. 그러나 당신들이 總統의 決定에 반하는 일, 특히 西方聯合國側으로부터 支授을 받을 것을 企圖한다면 獨逸空軍의 威力를 世界에 100% 誘示하겠오』라고 말했다. 이는 英國과 프랑스에 대한 警告도 겸했는데 괴링이 위협한 이 조처는 말로만 끝나지 않을 충분한 実行可能性이 있었다. 괴링은 命命했다. 『署名하십시오』 數百台的 폭격기가 그의 信號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署名을 거부하는 경우 이 信號

는 6시에 내려질 것이며 프라하存続과 滅亡의 岐路에서 선택하라고 위협하면서... 밖에서는 슈미트가 계속 呼出다이얼을 돌리고 있었으며, 리벤트로프는 『이같은 重大狀況下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게 閣僚들은 잠만 자다니』하고 투덜대며 그에게 郵政相을 깨우라고 말했다.

『갑자기 (슈미트는 계속 회고하고 있다) 顯動이 일어났다. 괴링은 대기하도록 指示를 받은 히틀러의 主治医 모렐博士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괴링은 흥분하면서 「하차가 氣絶했다」고 말하고 「그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 그 老人으로서 무척 힘든 날이었을 것이다」라고 思慮있게 덧붙였다. 『하차大統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全世界가 來日 그는 總統府에서 暗殺당했다고 말하리라고 나 (슈미트) 는 생각했다』

그러나 슈미트는 거의 모르고 있었으나 世界輿論이상의 것이 左右될 판이었다. 모렐로 부터 注射를 맞고 하차大統領은 깨어났다.

그는 계속 署名을 거부한 끝에 다시 氣絶한 후 깨어났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더 자주 기절했거나 프라하電話線이 세 시간만 더 소용되지 않았더라면 히틀러는 도박에서 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盜難警報裝置를 沈黙시키지 못한채, 또한 비록 組織的인 方法이 아니라 할지라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抵抗이 일어나는 가운데 第2次世界大戦은 1939年3월에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3시 55분에 하차大統領은 文書에 署名했다. 슈미트가 프라하呼出에 성공하자 하차大統領은 프라하政府에 대해 電話로 抵抗을 試圖하지 말도록 命令했다. 署名후 히틀러와의 마지막 會談이 있었는데 히틀러는 하차大統領에게 『우리는 國家解体를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러한 意向도 없다. 다만 체코國民은 체코人으로서 獨逸國民은 獨逸人으로서 生活을 營為할 따름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獨逸과 체코슬로바키아가 生産을 倍加시킬 수 있는 注文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獨逸側에서는 하차大統領의 趣旨가 잘 전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더러 衝突이 있을지도 모르나 大部分의 지역에서는 抵抗을 받지 않고 進駐할 수 있으리라는 結論을 내렸다.

체코側이 署名한 合意文書는 世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 모든 努力을 中央유럽의 安定과 秩序 그리고 平和를 追求하는데 傾注해야 한다는 確信이 雙方間에 表示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大統領은 이 目的과 窮極적인 和平을 이룩하기 위해 체코國民과 國家의 運命을 獨逸共和國總統의 손에 委任한다는 것을 宣言했다. 總統은 이 宣言을 受諾했으며, 체코國民을 獨逸共和國의 保護下에 두며, 체코의 特殊事情에 따라 체코國民生活이 발전할 수 있는 自治를 부여토록 하는 決定을 발표했다...』

후에 英國과 프랑스가 抗議를 提起하자 바이츠작키는 하차大統領의 署名을 내세웠다. 그러나 聯合國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 文書가 아니라 하차의 命令에 따른 무저항리의 占領速度였는데 때는 이미 늦었었다. 이틀후 챔벌레인은 버밍햄에서의 연설을 통해 히틀러에 대한 그의 評價의 大轉換을 表明하고 두번 다시 그러한 計略에 말려들지 않기로 다짐한 것이다. 만약 챔벌레인이 이 演說을 준비할 때까지 40個 체코師團의 일부라도 저항을 시도했다라면 히틀러마저도 그 정도 期間은 체코軍이 버틸 수 있으리라 預言했었다

聯合國은 어떤 措置를 취했을 것인가? 다만 한 가지는 確實하다: 즉 히틀러는 그 措置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39年 3月 15日 아침 4시, 하차와 츠발코프스키 兩인이 署名한 文書를 히틀러가 읽어 보면서, 그는 (그 文書를) 알아내지 『않을것』을 안 것이다.

이 들 兩인이 總統府를 떠날때 빌헬름슈플라쓰는 아직 어두었다.

그 시간은 獨逸軍의 侵攻開始 2시간전 이었다.

츠발코프스키外相은 하차大統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國民들은 우리를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國民이 存  
続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학살을 막은 것입니다』

[ 다니엘·엘스버그教授가 1959년 3월 보스턴의 로올렐大學에서  
行한『恐喝의 技術：經濟的紛争 및 戰爭에서의 脅迫에 관한 研  
究』題下의 講義중에서. 1960년 프린스턴大學新聞의 “熱該  
戰에 대하여”라는 論說에서 헤르만·칸이 引用 ]

「鐵의 帳幕」 電報

「윈스턴·S·처칠」

本人은 또한 이 당시 「트루먼」大統領에게 「鐵의 帳幕」電報라고 부를 수 있는 글을 보냈다. 이問題에 관한 本人의 모든 公文書중 나는 바로 이 公翰으로 批判받고자 하는 바이다.

「트루먼」大統領 閣下

1945年5月12日

1. 本人은 유럽情勢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유럽에 배치된 美空軍의 절반이 이미 太平洋戰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新聞은 유럽을 떠나는 美軍의 大移動을 大書特筆하고 있습니다. 우리 軍隊도 앞서의 協定에 따라 大幅 感縮될 것입니다. 「카나다」軍은 撤収할 것이 틀림없으며 한편 「프랑스」軍은 虛弱하고 상대하기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軍事力은 大陸에서 獨逸을 制御할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시 일내에 사라져 버릴 것임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 한편 蘇聯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하고 있습니까?

本人은 항상 蘇聯과 友好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閣下와 마찬가지로 本人은 蘇聯이 「알타」會議에서 이루어진 諸般 決定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그들의 「폴란드」에 대한 태도 「그리스」를 제외한 「발칸」地域에서의 압도적 영향력 오스트리아政府에 대한 妨害工作 여러나라에서 共產主義의 手法을 자행함과 병행하여 그들이 管轄내지 占領중인 領土의 併呑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강한 軍隊를 장기간 作戰에 투입시킬수 있는 능력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1~2年이 지나 英國軍 및 美軍이 撤收해 버리고 「프랑스」軍은 아직 막강하지 못하며 우리가 「프랑스」軍을 주축으로 불과 數個 師團을 유지하는 반면 蘇聯은 2~3백 여개의 師團兵力을 보유하게 된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鐵의 帳幕이 그들의 앞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튀백」-「트리에스트」-「코르푸」以東의 全地域이 조만간 그들의 手中에 완전히 놓이게 될 것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덧붙여 美軍이 승리로 쟁취한 「아이제나하」와 「엘베」라 사이의 보다 광대한 지역도 美軍이 撤收하면 불과 몇週안에 蘇聯에 占領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蘇聯이 유럽의 中心部로 전진해 들어옴에 따라 獨逸國民이 다시 西쪽으로 대피 피란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젠하우어」將軍에 의해 모든 대책이 상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帳幕은 또다시 비록 全的으로는 아닐지라도 매우 넓게 드리워 질 것이며 蘇聯에 점령된 수백「마일」의 廣大한 지역은 우리를 「플란드」와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4. 우리 國民들의 관심은 한편 敗亡한 獨逸에 가혹한 膺懲을 가하는데 집중될 것이며 이는 蘇聯이 北海와 大西洋으로 단시일내에 進軍해 올수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5.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軍隊가 致命的으로 弱화되거나 占領地區로 물러서게 되기 전에 蘇聯과 理解를 성립시키던가 아니면 그들과의 關係를 直視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直接談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本人은 閣下의 高見과 助言에 충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蘇聯이 파오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며 의문의 여지없이 이는 가장 便宜한 解決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힘이 쇠하기 전에 蘇聯과 妥協을 보는 문제는 무엇에 比肩할바 없는 焦眉의 急事라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윈스턴·S·처칠] 등과 「第2次 世界大戰回顧錄」 第6卷중의 「榮光과 悲劇」 「호튼플린」社, 1953 ]중에서 ]

愉決하고 氣慨있는 親旧들

[던·애치슨]

... 「베빈氏는 「마살」將軍을 존경했다.

「마살」계획은 그에게 있어서 歷史上 가장 위대한 業績의 하나였으며 사실 그것은 옳은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1947年6月 마살將軍이 「하버드」大學에서 행한 연설문을 읽은 뒤 英國外務省 事務次官( 윌리엄·스트랭 ) 이 駐美英國大使館에 훈령을 띄워 「마살」將軍이 의도한 바를 國務省에 문의하도록 제의한 사실을 설명했다.

「빌」, 우리는 그가 말한 것을 알고있지 않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을 한다해도 당신이 원치않는 대답만 얻게 될 것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이지 그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하는 것은 아니요, 이어 그는 즉시 유럽復興을 위한 「파리」會談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1949年 봄 北大西洋條約調印으로 英國 및 「프랑스」外相과 두가지 重大問題에 관해 個人的 協議 및 協力の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들 두懸案중 하나는 電信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運命이 좌우되어 있어 극히 秘密이 요청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高度의 複雜性을 지닌 것이었다. 먼저 것은 「베를린」封鎖 終熄에 관한 「스탈린」과의 談判으로서 당시 이는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西方側의 13個占領地區를 統合하여 獨逸聯邦政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크레믈린」은 徒勞에 그친채 우리가 後者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베를린」封鎖를 합의하려 企圖해 왔다.

그해 봄같이 일하게 된것은 우리에게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베를린」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베빈」과 「슈망」兩氏는 封鎖危機의 종언이 전망되기 시작함에 따라 안도와 함께 즉시 우리의 秘密協商이 필요함을 인정했으며 우리가 모든 종류의 制限과 対応制限의 중지 換言하면 原狀復歸와 그리고 蘇聯의 主張에 따라 獨逸 및 「오스트리아」問題에 관한 外相會談 개최등에 관해 相互 提携하여 이룩된 성과를 승인했다.

그뒤 「크레믈린」과 합의가 이룩되었으며 民主主義 聯合國들간의 共同行動을 자주 혼란에 빠트려온 누설이나 모순된 설명 및 귀찮은 예언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同時發表가 준비되었다. 外相會談은 5月 「파리」에서 개척기로 예정되었다. 會談은 劈頭부터 暗礁에 걸렸다. 蘇聯은 東部占領地區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약화시키게 될 獨逸統一에 합의할 아무런 의도도 갖고있지 않았음은 분명했다. 協定은 蘇聯이 東獨에서 증오와 두려움의 적이었으며 獨逸共產主義者들은 反逆者로 멸시되었으므로 全獨逸을 蘇聯의 지배밑에 놓이게 하지 않는 協定은 그들에게는 모두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會談은 「비신스키」가 제의한 바와

같이 1950년에 獨逸에서 全外國軍이 철수하고 「파리」에서 會談을 소집 對獨講和條約을 체결하자는 등 宣傳的 聲明과 策略에 자리를 불러주게 되었다.

우리는 곧 會談이 단순히 실패로 끝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失敗은 蘇聯이 封鎖를 풀기로 한 결정에 대해 체면을 세워준다는 의중대로 갈 길을 간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그들이 모두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西方測 占領司令官들은 蘇聯管理하의 西「베를린」鐵道에서 罷業이 일어남으로써 鐵道交通이 마비되었다고 보고해 왔는데 파업은 西方地區의 鐵道勞動者들에게 西方「마르크」대신 그 4분의1의 交換價值밖에 없는 東獨「마르크」貨를 지불한데서 발단되었다. 더우기 蘇聯軍司令官은 通商에 관한 諸般 制限措施를 解除하는 대신 이의 解除作業을 全面 停頓狀態로 몰아넣었다.

여기서 決意가 試驗台에 오르게 되었다. 「포스터·널렉스」氏를 포함한 美國測 一角 에서는 이에 관해 會議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스크바」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베비」이나 「슈방」兩氏가 이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기뻐했다. 우리 셋은 會議開催 조건으로 封鎖의 即刻 全面解除를 내세웠다. 이 조건이 充足되지 않으면 會談은 말날판이었다.

우리는 本國政府의 승인을 받아 「비신스키」에게 協商을 배움치고 사물안에 鐵道를 움직일수 있도록 司令官들에게 指示를 내리는 데 있어서 步調를 같이 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는 처음에 거부했으나 우리가 會議중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방금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입각하여 태도를 일변시켰다. 일부에서는 이

정보가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通牒이었음이 틀림없다고 想像했다. 하여튼 또다시 進展이 이루어졌으며 비록 사흘이 經過했지만 交通再開도 해결을 보게되었다.

「기분 좋다」는 말은 英國의 「엘리자베드」三王 朝時代에는 마음이 든든하고 느긋함을 의미하는 말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시 그 위에도 쭉 그러했던 것처럼 무뚝뚝한 英國勞働黨지도자와 禁欲을 신조로 삼는 은퇴한 「로렌스」法律家가 얼마나 함께 일하기 유쾌한 사람들 인가를 느꼈다.

會議은 1949年 6月20일 獨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될바 없이 끝났다. 우리는 「헬름슈테트」에서 「베를린」에 기르는 回廊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결과는 失敗였다. 그러나 우리는 交易 및 「베를린」通行등에 관해 여러 暫定協定을 成就했으며 온건하고도 일시적인 것이나마 전반서으로 有益한 약속을 끌어낼수 있었다. 「오스트리아」獨立을 마련한 條約체결은 오히려 進展으로서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數百回에 걸친 實際級 會議로 泔水은 이루어지는데 보였었다. 우리는 1955年에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을 불과 目前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바와같이 北方의 밤은 그 장막을 내리고 우리의 노력은 徒勞에 그치게 되었다.

6月20日 月曜日 저녁 6時 會議는 앞서 說明한대로 休會에 들어갔다. 「삼페인」과 정중한 사별인사를 뒤로 우리는 헤어졌다. 「베빈」씨는 일찍 저녁을 들고 「런던」行 臨港列車에 당기위해 떠났다. 한편 우리 大使館에서는 記者會見이 마칠되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儀式되로 매듭짓고 있는 도중 「슈망」氏가 「비신스키」의 요청에 따라 外務省에서 한시간도 채 못되어 密急히 外相

會議을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기유는 아무것도 밝혀 지지 않았다. 이 소식으로 記者會見은 중단되었으니 이어 우리가 급히 만든 「샌드위치」를 먹는 「프랑스」친구들로부터 「비신스키」가 休會가 끝난뒤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次官 「크르미코」부터 전화를 통해 억지에 찬 어조로 「오스트리아」에 관한 합축은 重要條項을 빼먹는등 만족스러운 것이 못됨으로 協商을 再開하자는 訓令을 전해받았음을 알았다.

「베빈」氏와 나는 함께 프랑스 外務省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그가 이미 알고있는 같은 내용의 보고를 전해주었다.

「무슨 생각이라도?」 그가 물었다.

「뒤통수라고 할테요」 「농감이요」하고 그는 답했다.

우리들은 간신이 들어올리고 있는 外務省의 유리로 덮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물었다. 「赤旗라는 勞動者의 노래를 아시오? 내가 모른다고 말하자 그는 「곡조는 「매일랜드」나의 故鄉 「매일랜드」하고 갈소. 그곳 출신이니 잘 아실테데. 자, 우리 勞動者들이 하는것처럼, 단결의 표시로 합창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팔장을 끼고 「프랑스」 第2帝國의 謁見待機室을 지나치며 힘자게 그리고 會議室입구까지 왔을 때는 마지막 절까지 부를수 있었다. 同志等의 표시로서 이는 인상적인 것이 아닐수 없었다.

우리는 「슈망」氏와는 한 마디도 전케지 못하고 「비신스키」로부터 「크레블린」당 국은 그가 서명할 條約案에 兌換券으로

「利益金 및 기타 所得」의 對蘇支払規定을 삼입토록 쫓겨갈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비신스키」는 그러나 이 조항의 범위 내지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또한 우리 幕僚들이 검토하도록 내버려 두려 아지도 않았다.

「베리」氏는 그가 새로운 기록을 세웠음을 축하했다. 蘇聯과의 합의는 깨어지기 쉬운 것이며 특히 이날 것은 더욱 그랬다. 즉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休會를 再考하거나 우리의 言質을 바꿀 하등의 기유도 발견치 못했으며 「슈망」氏와 나도 이에 동의했다. 會議은 休會되었다. 子正까지는 「파리」와 그리고 「런던」의 불빛이 우리를 태운 「인디펜던스」가 「워싱턴」으로 향해 北으로 高度를 높임에 따라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방금 떠난 유배라고 헛헛있는 친구들을 정답게 생각하며.

「던·에치슨」著 「나의 交友錄」 (하퍼 앤드 브라더스)社 「뉴욕」, 1959 )중에서]

## 正 当 性 과 可 能 性

「헨리·A·키신저」

그러면 政治家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社会決定論者들은 政治家를 「歷史」라는 機械의 단순한 지렛대로 格下시켜 버렸으며 그가 막연하게나마 認識할 수 있을지도 모를 運命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成就하는 代行者로 格下시켰다.

事象의 遍在와 個人의 無力에 대한 이와같은 信条는 政策決定 概念으로까지 이어진다. 事實의 不充分에 따른 計劃의 偶然성과 知識의 限界에 따른 行動의 困難성이 拳論되곤 한다. 물론 政策이 無에서부터 생길수 없으며 政治家는 그에게 부여된 것으로 다루어야 할 資料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事實이다. 地理와 可用資源뿐만 아니라 國民性이나 그 歷史的 經驗의 特性도 政治家의 行態에 限界를 긋는다.

그러나 政策이 스스로의 바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實체가 自己補受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즉 「나폴레옹」帝國이 동요하고 있다는 認識은 1813년에 政策의 條件이 있으나 그 自体가 政策은 아니었던 것이다. 革命期는 勢力均衡의 秩序에 代替되어야 하며 獨斷的 意志는 正統性的 主張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浮上」하게 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均衡의 본질이나 이를 얻기위한 手段이 당장 분명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기위해서는 대부분의 列強이 취한 우유부단한 조치들을 一瞥하는것으로서 足하다.

國家利益이 事後에 아무리 「명백한」 것으로 보이게 될지라도 그 當代에는 이와는 相馳되는 行動路線을 권장하는 等 서로 兩



立될 수 없는 多數의 政策으로 짓눌렸다. 즉 1813年 絶對的 中立을 擁護하지 않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政治家들은 無敵의 侵略者와 紐帶를 공고히 하기 爲해 「프랑스」와 同盟을 繼續하거나 아니면 유럽을 휩쓸던 民族主義的 熱望에 호응하여 즉각 轉向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메테르니히」 혼자만이 확고했다. 그는 「나폴레옹」 帝國이 勢力均衡 體制와 兩立할 수 없음이 複數民族으로 이루어진 「오스트리아」 帝國이 民族主義時代와 併存할 수 있음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同時에 英國內閣은 「나폴레옹」의 타도를 主張하고 그뒤 가혹한 講和를 圖謀했을 때 이는 여론만을 반영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報復이 아니라 勢力均衡에 基礎한 平和와 無力化대신 「프랑스」와 和解를 가져온 者는 다름아닌 「카슬레이」였다.

이러한 諸政策間의 選擇은 「事實」이 아니라 그 解析에 左右되었다. (註1) 이는 本質的으로 道德的 行爲 다시 말해서 知識에 基礎를 두고 있으나 그와 同一한 것은 아닌 것으로서 주어진 資料에 對한 理解와 함께 目標의 概念에 關한 그 妥當性에 左右되는 價值判斷과 關係되는 것이다.

---

註： 政策은 安保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客觀的」이라는 主張은 完結된 行爲에 動機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바 없다.

政治家의 重要問題는 成就된 政策에 對한 공식적인 定義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그 內容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政策에 對한 論點은 安全의 지체에 關한 의견차이가 아니라 그 本質에 關한 것이며 安全의 바람직함이 아니라 이를 達成하는 最善의 方策에 關한 것이다.

政治家의 力量은 이에 따라 諸勢力간의 現實關係를 認知하는 能力이며 그의 知識을 目的에 利用할 수 있는 能力이다. 「오스트리아」는 그 地理的 위치와 国内 政治構造에 따라 불가피하게 安定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이고 현명치 못한 것일지라도 「오스트리아」가 国内에서 正統原則을 國際秩序의 그것과 同一視하는데 成功하느냐의 與否는 그 外相의 所任이었다.

英國이 勢力均衡을 이룩함으로써 安全을 찾으려 努力해야 했던 것도 23年間に 걸쳐 繼續되어온 戰爭의 結果였다.

그러나 英國이 유럽列強의 協商에 참여하게된 것은 전적으로 한 個人의 努力에 기인했다. 따라서 스스로 設定한 目標보다 더 좋은 政策은 없는 것이다. 「카슬레이」의 政治的 力量은 그가 適法秩序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報復보다 統合을 우선으로 삼은데 있으며 마찬가지로 「메테르니히」는 自身の 업적중 그 形式을 內容과 혼동하지 않고 「오스트리아」는 勝利가 아닌 和解를 통해서만 存立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데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그러나 自身들이 갖고있는 資料의 限界를 넘어 目標을 設定한데 모두 失敗를 면치 못했다.

즉 「카슬레이」는 国内 政治構造에 관한 생각을 벗어나 理想을 비약시켰으며 「메테르니히」는 民族主義의 世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理想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政治家를 그가 품고있는 이상만으로 判斷한다는 것은 그가 철학자와는 달리 自身の 생각을 실현해야 한것이 現實적으로 요청됨으로 充分한 것은 못된다. 그리고 政治家는 불가피하게 資料의 遲鈍性에 他국이 조종될 수 있기 보다는 이들과 和解가 強要된다는 事實에 安全의 要請은 地理的 위치와 国内 政

治構造에 따라 國家마다 相異하다는 事實에 직면한다. 그의 道具는 外交이다. 武力行使보다는 合意에 依해 그리고 個個의 熱望을 一般的 總意에 타협시키는 行動의 기반을 設定함으로써 國家 相互間을 관련짓는 것이다. 外交는 強要대신 說得에 依存함으로써 正当化되는 原則에 關한 협의나 或은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일지 몰라도 理論的으로 權力關係의 相互合致된 해석을 이룩함으로써 일정한 體制가 存在할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카슬레이」와 「메테르니히」는 모두 外交家로서의 뛰어난 자질에 크게 힘입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참여한 協商에서 主導權을 掌握했다. 「카슬레이」는 相衝되는 見解를 화해시키는 能力과 經驗主義的 政策이 부여한 誠實性으로 그리고 「메테르니히」는 거의 신비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의 敵을 압도하는 能力과 양보를 항복으로서가 아니라 共同目的에 對한 희생으로 보이게 만드는 道德體系를 명확히 說明하는 方法을 통해서……

그러나 政策이 最大의 시련을 받는 것은 國內에서 支持를 획득하는 能力이다. 이는 兩面을 지니고 있다. 즉 政府機構내에서 政策을 合法化하는 問題로서 官僚主義的 合理性의 問題가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國民的 經驗과 조화시키는 歷史的 發展의 문제이다. 「메테르니히」가 1821년에 「러시아」 大臣들과 보다는 「오스트리아」 國民들과 보다 어려움에 부딪쳤으며 「카슬레이」는 協商에서 마다 外國과 보다는 그의 閣僚들과 힘든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은 逆說的이긴하나 偶然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政策과 官僚主義간에는 그 정신에 있어서 전혀 正反對이 기 때문이다.

政策의 本質은 不豫測性으로서 이의 成敗는 역시 億測이 배 될 수

없을지라도 判斷의 正確性 여부에 左右된다. 한편 官僚主義는 安全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未來에 對한 確실한 豫測을 成敗의 關鍵으로 삼고있다.

深遠한 政策을 끊임없는 創造 즉 目標에 對한 間斷없는 再定義를 通해 興盛하며 훌륭한 行政은 慣例 즉 平凡을 規律하는 諸關係의 定義를 닫고 存立한다.

政策은 危險의 調整을 수반하며 行政은 逸脫의 회피를 지향한다.

政策은 그 手段과 均整感의 關係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나 行政은 所與된 目標안에서 각 行動의 合理性을 따진다.

政策을 官僚主義方式으로 成就하려는 企圖는 個個 事件의 포로로 만들기 쉬운 可測性의 追求세로 유혹하며 行政을 수행하려는 努力은 官僚制는 着想이 아니라 執行을 目的한 것이므로 全的인 無責任을 結果한다.

政策을 行政的으로 수행하려는 誘惑은 항용 있어온 일로서 이는 대부분의 政府가 단지 技術的인 實踐能力에 의해서만 制限을 받은 社會的 諸決定의 이행을 中心으로 일차적으로 國內政策의 수행을 위해 조직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對外問題와 連관하여 技術상의 問題에 對한 관심은 達成된 目標보다는 회피된 過誤로 萬事를 평가하는 基準과 그리고 能力은 機會의 發見보다는 破局에 對한 先見에 依해 보다 적절히 判斷될수 있다는 생각에로 이끈다. 1814年 「빌」에서 論爭이 한창이었을 때 「반시타르트」가 한 마디로 「러시아」의 위협이 實在하지 않음을 부인한 사실이나 「스타디온」이 1821年 「피에몬테」에 對敵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財政이 高갈되었다고 비난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 危險은 象徵

化 아니면 연기된데 반해 모험은 모두 顯在해 있었고 確平不拔에  
대한 요청은 危險의 存在를 부인하는 形態로 나타난 것이다.

[「헨리·A·키신저」著, 『復元된 世界: 「메테르니히」·「카슬레  
이」와 平和의 諸問題— 1812-22 』, (「호튼·미플린」社刊 「보스  
턴」, 1957) 중에서]

### 科學者도 外交官인가?

로버트 길핀

돌이켜보면 1958年의 제네바 專門家會議(註)가 外交史上 特異  
한 것이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科學者의 責任이란 포  
면상 그 성격이 순전히 技術的인 것이지만 실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高度로 政治的인 과업이었다.

強大國들(요즘 보다시피 적어도 美國의 境遇)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問題를 놓고 政治的 훈련이 없는 일단의 民間人  
들에게 單縮協定の 광범한 골자를 협상하자는 무거운 外交的 責任  
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것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重大현상이라는 事實은 1958年  
7月 初까지도 認識되질 못했으며 그 결과 회의에 참석한 美國側  
專門家들은 자기네가 제대로 회의 準備를 못했다는 것을 이내 깨  
닫게 되었다. 美科學者들은 그들의 과업이 비록 政治的 意義가  
큰 것이긴 하나 일차적인 責任은 核武器 實驗禁止協定을 위한 技  
術的 可能性을 모색한다는 순전히 과학, 기술적인 責任이라 생각하  
고 회의에 임했다. 이같은 입장은 제임즈 피스크 美國代表가 행  
한 다음과 같은 開幕演설에서 分明히 나타났었다.

그는 회의 代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번 會議가 全的으로 技術的인 것이길 바란다. 우리들 美國代表는 政治的 問題에 關한 限 如何한 討論이나 決定을 내릴 권한도 갖고있지 않다. 會議 進行에 있어 우리가 당면한 技術的 問題만을 다루기로 그 討論範圍를 제한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그만큼 경감될 것이다.

美國 代表들은 모든 技術的 要因들을 檢討한 끝에 會議가 다양성있는 여러 性格과 可能性 및 限界등을 갖는 「벗가지 體制」를 立案하고 이것을 各國政府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는 반대로 소련側 전문가들은 會議 첫날부터 그 會議가 「核實驗 中止협정을 감시하기 위한 全面的인 감시體制」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 科學者들은 「既存의 핵폭발 탐지方法을 檢討하여 그중에서 가장 效果的인 것을 選擇 各政府에 건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나섰다. 그들은 西方側 전문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核實驗 禁止 公務에 끌어들이고 特殊 감시체제를 마련토록 하려했다.

두번째 問題에 있어서도 西方代表들은 소련側과 根本的인 政治的 의견 對立을 면할 수 있었다. 소련代表들은 그 會議가 各政府에 건의할 어떤 하나의 體制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主張했을 뿐 아니라 그같은 體制가 어떤 政治的 要件을 갖추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고한 準備를 해놓았던 것이다.

예컨대 西方側은 TNT 1킬로톤級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地下核實驗을 탐지할 수 있는 核實驗 탐지體制의 主要 골자를 이 會議가 起草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소련側은 計劃을 거부했다.

소련側의 이같은 主張의 底意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은 그로부

터 2年後 당시 대표단의 科学고문이었던 헤럴드 브라운씨가 原子力 合同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1킬로톤 이상의 지하 核實驗을 탐지하기 위해선 전세계에 6백 50개 정도의 探知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숫자는 소련권 代表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네바會議에 참석한 美國 代表들은 자기들이 政治的 訓令을 휴대한 東歐 代表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美國 代表들은 協商을 결렬시키든가 소련 代表들이 이 會議에 부여한 政治적 制限의 範圍 내에서 어떤 技術的인 合意를 보도록 努力하든가 할 수 밖에 없었다. 美側은 결국 後者를 選擇하게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이젤하임政府의 默認下에 그들의 政治的 경험이나 能力 밖의 과업을 떠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美國 代表들의 外交的 협상 성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경험도 없는데다가 諮問 또한 빈곤하여 美國 代表들은 소련 側에 主導當했으며 그러한 사이에 外交 경험이 있는 協商家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을 몇가지 불리한 政治的 양보를, 그들도 모르는동안 저지르고 말았다.

예컨대 감시委員會가 航空機를 사용한다는 문제는 소련 代表團이 이 제네바 「技術」會議에서 政治的 利點을 확보하기 위해 行한 協商術이 어떤 것인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한 例이다. 다음은 當時 會議場에서의 公式 발언記錄의 일부이다. [페트로프](소련 語에서 옮김) -그렇다면 「피스크博士」본인은 貴下가 제안한 텍스트에 對한 약간의 修正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貴下가 두군데 사용하신 「諸公海」라는 말 다음에 괄호를 치고 「諸大洋」이라는 말을 삽입하자는 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면 氣象관측을 위한 비행이나 放射能 검출을 위한 비행은 좁은 海域에서 보다는 大洋상공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法的으로는 이 모든 海域이 公海가 될 것이지만 現實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비행은 大洋上空에서 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스크博士: 그렇다면 하나라도 말을 절약하는 뜻에서 L 諸公海 7란 말을 L 諸大洋 7으로 代替하면 될 제 아니요? 짜라프킨: L 諸大洋上空에서 7- 그렇게 복수로 말이요? 피스크博士: 그렇소 複數의 L 諸大洋 7이요.

페도로프 (소련語에서 옮김): 그렇다면 피스크博士 이상의 結論이 본會議에서 수락 승인되었다고 간주해도 되겠지요? 매우 좋습니다.

科學的인 페도로프가 國際法 專門家의 자문을 繼續 받고 있었다는 것은 分明하다. 따라서 美國側 代表團長도 소련側 제안에 동의하기에 앞서 의당 L 公海 7와 L 大洋 7의 法的 相違性을 따져봤어야 옳았을 것이다.

용어의 절약 아닌 용어의 法的 의미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말함 것도 없이 소련側 의도였다. 결보기엔 전혀 無害해보이는 이 용어의 交換으로 제네바體制下에선 그 어느 항공기도 放射能 낙진 수집次 소련 近海에 接近할 수가 없게될 뻔했던 것이다.

왜냐면 소련은 캄차카半島의 最南端을 제외하고는 모두 L 바다 7와 면하고 있을 뿐 L 大洋 7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美代表團이 이 會議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또 한가지 매우 중요한 정치적 問題는 核実験의 후이 발생했을 때 現地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의 与否를 누가 그리고 무엇이 결정하느냐는 것이었다. ... 이 問題에 關한 美國의 立場은 會議當時에도 그랬지만 그 후 一連의 協商에서도 조사不可能한 사건 말하자면 그 사건을 地震



으로규명할만한 어떤 科学的 基準을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地震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現場調査의 範圍에 들어간다.

이에 반해 소련側은 核保有国들로 구성될 감시委員會가 檢証与否에 결정권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東西科學者들을 對立시킨 실제문제는 제네바體制가 現地 檢証權을 保障條項으로 하느냐 않느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西方國家들이 소련領土內를 調査할 權利를 가질 것인가하는 問題였다. 불행이도 專問家들은 이 極히 重要한 政治的 技術的 問題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 그대신 現場 檢증에 條項의 幕然한 表現과 용어가 東西 兩側으로 하여금 그 條項과는 서로 相反되는 結論을 내놓게 하였다. 會議 최종 報告서는 어떤 대목에서도 L規 明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선 그 地域에 對하 調査가 必要하다고 하고 어떤 대목에 가서는 L (감시委員會가) 核爆發의 발생 与否를 결정키 위해 調査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다.

西方側 專問家들이 보기로는 이것이야말로 調査問題에 있어 그들의 소련側 立場을 누른 일대 勝頓같았다. 戰後 軍縮協商에 있어 소련側이 뜻있는 調査檢証에 동의하기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믿어졌다. 그러나 그 후의 사건들이 이내 보여주었듯이 소련側의 의도는 감시委員會의 強大國들이 유엔 安保理에서와 마찬가지로 現場檢証 실시를 비롯한 主要 실질문제에 있어선 거부권을 行使한다는 것이었다. 核實驗 금지 협상에 있어 그들이 취할 또다른 政策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註: 1958년 7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核實驗中止의 可能性

協定에 對하 위반行爲 深知 可能性을 研究키爲하 專問家會議 [로버트 김핀著, L美國科學者들과 核武器政策] (프킨스턴大學出版部 1962年刊) 中에서]

## 協商에 관한 몇가지 노트

로버트 A. 로베트

軍事情報나 政府의 外交的 또는 기타 聲明書를 評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懷疑이다.

如何한 政府 部署가 제시한 숫자도 반드시 다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 不正確하거나 不完全하다.

出處를 체크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政府의 統計숫자를 인용하지 말 것.

協商에서 虛勢는 禁物이다. 일단 취하기로 약속한 행동은 기꺼이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

協商에 임하기 앞서 記者會見, 인터뷰 같은데서 수다를 떨므로서 자신의 協商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된다.

暫定的 약속이나 맹서는 可能的 限 피할 것. 예컨대 『배상금 요청은 절대로 없겠다』든가 『우리가 核彈을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위가 그것이다.

즉 무슨 言質에서건 『절대로』란 말을 써서는 안된다.

특히 소련과 프랑스에 대해선 일방적인 양보를 해선 안된다. 그 경우 그들은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相對便의 어리석음에 경멸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不完全한 또는 文脈을 벗어난 引用을 주의할 것.

다음과 같은 不完全하고 不公平한 귀결이 얼마전 某잡지에 실려 있다.

『 去來문제에 있어

주긴 적게 주고

요구는 많이하는 것이

비텔란드인의 결점. 』

그러나 위에 引用된 4 行의 다음에는 의미가 完全히 뒤바뀐 다음  
의 또 다른 4 行이 원래 따라야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같은 사실은 外交使節중의 한 친구가 내게 알려준 것인데,  
그는 바로 이 농담조의 第2 聯에 때로 진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 協商을 했다하면

웃웃까지 벗어주고

고맙단 말 한마디 못듣는 것이

양키들의 결점 』

우리 友邦國중의 하나는 名分을 위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主義를 갖고 있었다.

즉 속임수도 그들이 사용하는 속임수만은 完全히 公平하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理念이나 法律, 질서, 정치적 自由등이 서로 비슷하지 아니한 그  
런 두나라 사이에 『 자기 감시적인 條約』이라든가 『 자기 實行的  
인 條約』이라는 등의 것은 전혀 存在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  
다. 서로 不信하는 2 개 當事國의 경우엔 調查와 검증이 기만  
또는 기습을 防止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교란 내지 도피할 수 없는 調查方法이나 高度의 技術이 存在할

때에는 이들 技術的 機械的 調査裝置가 비록 적절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實驗을 거쳐 기능을 確認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強大國 사이의 不正直을 豫防하는 가장 確實하고도 유일한 길은 條約과기의 경우 이로부터 發生하는 구체적 損害가 기만자 쪽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自由通過가 금지된 運河로의 油類 수송협정이 그런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運河를 봉쇄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油類 供給도 끊어질 것이다.

條約中の 누락이나 실수를 예상한 保障條項은 確保할 수만 있다면 有用하다.

가령 『本條約에서 취해진 理解나 約束을 完全 履行하는데 必要한 如何한 그리고 일체의 行動을 취하기로 (귀국은)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條項이 그것이다.

[트루먼 行政府 國防長官 및 그후의 行政府 咨文역을 맡아 일해 오신 동안 로버트 A. 로베트氏가 써둔 未發表 備忘錄 중에서]

### 政府로서의 同盟

리처드 E. 노이스태트

同盟機構는 民間, 軍事 기구를 불문하고 主權體 (한 때 SHAPE가 主權國과같은 역할을 한적도 있었으나)가 아니라 각 參與國 政府에 의해 탄생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參與國 政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대부분의 경우 큰 것이 못되는) 끼칠 수 있느냐 하는 能力과 또 그 상징적 性格에 左右된다.

同盟은 各政府로 構成되므로 各同盟은 이 實務기구를 集團으로 構成하는 官吏들과 政治人들 사이의 內的 통정을 위한 다소 복잡 한 장소가 된다. 同盟기구의 活動이란 이 内部 活動의 產物이다.

그 內的 통정은 그러나 합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르고 자기네 政治제도의 壓力에 反應하면서 행해진다.

따라서 同盟國間的 관계는 部署間 異見을 조정 . 극복하는 백악관 이라는 最高法院가 없다는 것만 다를 뿐 美行政府內的 2개 省 - 에컨대 國務省과 國防省間的 관계와 흡사하다.

이들의 관계는 서로 相異한 歷史와 作業과정과 先入見 , 展望등을 가지는 거대한 두 기구의 관계이다.

또 그 기구는 判異한 個性과 技術 , 慾望과 責任을 진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

따라서 各 부서의 官吏集團은 당연히 他官吏集團과 獨立해서 일 을 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자기네의 일에 도움이 되거나 必要할 경우에만 他部署官吏와 協力한다.

協力の 衝動이란 결코 自然法則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内部 에서 그리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며 누구에게나 도움내지 지원이 必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첫째 , 한 政府가 他政府에 어떤 입김을 넣으려할 때는 他政府內 의 충분한 要人들을 설득시킬 수단이 우선 發見되어야 한다.

즉 이쪽 政府가 원하는 것은 전체 同盟國들의 目標과 일에 必要할 뿐더러 各國의 內的 기대와 두려움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同盟國들이 각각의 外交分野에서 추구해야 할 그 어떤 것이라는 점 을 그들에게 설득시켜 하는 것이다.

20 餘年前 美國이 스탈린과 經濟위기 덕택에 유럽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있다. 또 우리가 11年前 그러한 대상도 없이 유럽 防衛共同体에 관해 헤보려다가 프랑스議會와 충돌하는 바람에 실패 하고 만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둘째로, 政府間 政策을 서로 묶어 두려고 한다면 兩側의 要人들 을 每日 연결시켜 서로 의존케 하고, 協力해야 한다는 구체적 動機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合作事業이나 利害관계 確立을 추구 해야 할 것이다.

NATO 以前의 現代 主要國家들 사이에 결정된 가장 긴밀한 平和 時 同盟은 1879 ~ 1914 年間의 獨逸과 오스트리아-헝가리 同盟이 었다. 合同理事會議를 제외하면 이 5 國 同盟은 오늘날 NATO가 가진 것과같은 체제를 갖고 있진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신 강력한 大衆政治와 官僚政治, 강한 傳統 등 을 지니고 있었으며 오스트리아-프루시아戰爭期間 13年(및 나폴 레옹 治下 10年)을 除外하면 兩國은 거의 언제나 하나의 同盟 으로 묶어져 있었다.

이같은 긴밀한 政治的 유대를 除外하면 어떤 特殊한 合作事業이 同盟관계를 지속시키는데 가끔 공헌해왔다.

예컨대 미사일 時代가 도래하기 직전 SAC(美戰術空軍)가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을 당시에는 英國 폭격 司令部의 비행거리상의 利点 때문에 有事時 英國의 報復力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및 방어업무에 있어서 勿論 美國이 보다 중요한 파트너이 긴 했으나 英國은 상당한 수교와 돈을 미국이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며 英國이라는 섬은 이른바 격침할 수 없는 航母』로서의 중요한 存在가 되 다.

따라서 美國防省의 防禦담당 관리들은 언제나 英國을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兩國間의 結속을 유지시킨 두터운 끈인 것이다.

自由世界 準備貨幣로서의 달러 및 파운드貨의 地位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 역할은 지금도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다. 1956年 英國의 수에즈政策을 변경시키려던 아이젠하워大總領이 実感할때로 이같은 關係에는 상당한 지레作用이 存在한다.

그러나 最近 다시 우리가 目格해오고 있듯, 兩國間에는 달러-파운드에 의한 共通點이 상당히 存在하는 것이다.

이같은 類의 合作이나 共勵 관심사는 兩國政府內의 人士들이 서로 他方에 대해 갖는 기대와 두려움을 지속시키면서 각자 자기 分野에서 맡은 일과 욕구를 추구하게 한다.

스탈린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存在가 없는 平和時의 同盟에 있어선 이만큼 兩國政府를 結속시킬 수 있는 다른 要素도 없을 것이다.

[ 1965年 6月 29日 第 89次 議會 第 1次 會期의 國家安保 및 國際關係 小委員會 청문회 証言錄에서 ]

## 協商으로서의 對決

토마스 C. 쉘링

『協商』 또는 『홍정』이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말에 의한 活動이며 公式的인 행위여서 關聯 當事國이 얼굴을 맞대고 直接 말을 나누지 않는 한 協商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이 定義대로 하면 1965年初 미국과 베트남, 美國과 越盟間에는 이렇다 할 『協商』이 없었고 U-2機 사건으로 美·蘇 頂上會談이 擱置된 1960년 파리에서의 아이젠하워와 흐루시초프 사이에도 『協商』은 없었던 것이 된다.

또 이 定義에 따르면 罷業이란 産業界의 協商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目標가 되며 감정 表示와 退場이라든가 구두를 벗어 卓子를 치고 罷業에 동조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를 뒤엎거나 카리브海에 海兵隊를 파견하고 越盟內 目標를 폭격하는 짓들은 協商이 아니라 協商의 否定, 마땅히 協商으로 代置되어야 할 행위가 된다.

法的인 또는 戰術的인 목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훌륭한 定義이다.

예의라는 것도 지킬만한 것이며 따라서 國家勞動關係法이 雙方에 대해 『信義를 가지고 홍정』 즉 차분히 앉아서 서로 對話하도록 중용할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이같은 극히 제한된 協商의 定義도 雙方에다 協商에 必要한 어떤 非폭력적이고 保守的인 規則을 부과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分析的으로 말한다면 協商의 본질은 의도의 傳達, 의도의 知覺,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에 관한 기대의 操作, 의협과 제의와 保障을 强하고 어떤 決意와 能力을 전시하는가 하면 서로 할 수 있는 행위의 限界를 전달하는 一方 妥協과 상호 바람직한 交換조건의 모색, 相互 理解와 合意內容을 실시하기 위한 制裁 方法의 설치, 설득 通報를 위한 진정한 노력, 敵意, 親善, 相互尊重 및 예의規則의 창설 -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會談, 특히 公式會談이란 이 많은 것중의 일부이며 그것도 때에 따라선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수도있다. 또 會談은 값이 많이 드는게 못되므로 중요한 것은 行動과 展示이다.

戰爭, 飢饉, 싸움 등도 실제 會談 못지않은 『홍정』일 수 있다.

勿論 이것들이 協商도 아무것도 아닐 경우도 있다.

세컨데 이것들이 双方 意思를 전달, 설득, 부과하려는 의식적 과정에서 동떨어져 나온 것일 때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럴 때엔 外交的 會談 역시 의미있는 협상은 못될 것이다.

[ 토마스 C. 웰링, 『武器와 勢力』 (세일大学 1966年刊) 중에서. ]

## 효과적인 協商

프레드 찰즈 아이클레

### 協商의 時期

協商이 필요한 時期라든가 또는 國際關係를 再論하기 위해서는 비필 흥정이나 보다 덜 意識的인 對決이 더욱 效果的일 수 있는 時期가 언제냐하는데 있어선 무슨 단순한 法則이 있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엔 協商이 필수불가결할 때도 있고 協商이 선택적인 것이 될 때도 있으며 協商을 통하지 않고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協商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에의 共同勞力이라든가 영국의 歐共市 加入의 경우처럼 複雜한 協力形態가 개입되는 狀況에서는 必要하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예컨대 아이버리 코스트의 유엔加入問題 같은 경우엔 重大協商이 必要치 않다.) 協商은 또 포로交換이라든가 相互 領事交換, 財政補償에 關聯된 換業務(油田使用料나 公港使用料 支払같은) 등 모든 交換業務의 경우에 必要하다. 協商은 이밖에도 公式 國際機構의 設立이나 平和條約 또는 同盟體制에서 처럼 明確한 合意가 필수불가결한 모든 狀況에서도 必要하다. 그런가하면 어떤 合意事項은 매우 미묘한 方式에 의해 도달되는 수도 있어 어떤 明確한 提案이 이 과정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그런 事例도 있다. 한국戰爭때의 雙互 制限(예컨대 南北韓 兩側의 物資補給路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같은 것은 協商을 통해서였다면 不可能했을지 모르며 오히려 協商이 방해가 됐을지도 모른다. 相互默認이라는 바로 그 不確實性이 거꾸로 그 制限을 한결 安全하게했던 것이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兩側 모두 서로의 補給路를 교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흥정」이

라는 규제를 모색할 의사가 없었기 까닭이다. 어떤 明示된 代償을 위한 協商도 틀림없이 새로운 要求事項을 낳게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는 雙方이 討議를 거쳐 분명히 妥結된 일이 없는 黙契를 오히려 더욱 난처하게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雙方의 兵士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戰鬥의 규칙과 제한이나 보급로 차단에 관한 協商을 벌인다면 雙方의 国内여론이나 兵士들에게 오히려 逆效果를 주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두 国家国民들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할 경우 政府는 그 국민감정 때문에 協商을 전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대신 黙契에 의해 相互利害를 조정하려 할 수도 있게 된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 본보기이다.

武器制限과 軍縮의 分野에 있어서도 비록 大規模 公式會議가 자주 있어오긴했으나 重要한 諒解가 協商없이 도달되는 수가 있다.

公式 會談이라는 것은 不可避하게 政治問題나 國家의 위신문제 法的失例등을 介시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武器政策의 조화를 달성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 共同體 精神

어떤 共同의 노력을 위해 결속된 국가들은 때로 便利한 協商 스타일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政府内の 통상적 協商方式이라기보다는 政府內 委員會內的 政策 決定過程과 유사하다. 2次大戰 당시 英美의 協力は 바로 이같은 방식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최고 통수자인 루즈벨트와 처칠사이에서 그러했다. 최근의 경우를 든다면 유럽共同體의 보다 긴밀한 결속을 주장하는 몇몇 國家들의 協商方式이 이에 속한다. 歐共市 6개 會員國들은 相互 協商과 共同體內 協商過程에서 언제나 브뤼셀에서 이른바 레스쁘리 코뮌노테트라고 있는 「共同體 精神」에 입각한 것을 想起받곤 한다.

1950年 장 모네가 石炭鋼鐵共同体 결성을 위한 協商을 주재했을 당시 그는 먼저 각국 대표들에게 「共同体 精神」에 입각 각자의 課業을 직시하라고 타일렀다. 그는 서로 利害관계가 相衝하는 交易보다는 共通의 利益에 焦點을 두려했으며 서로 獨自的인 得失을 交換하기 보다는 共同事業의 利点을 極大化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떤 나라가 전혀 다른 問題에 있어 相對편의 양보를 얻기 위해 어떤 問題에 양보를 행하는 따위의 바터행위를 최대한 방지하려 했다. 그는 어떤 異質的인 一括協商이 共同目標를 위한 건설적인 공동노력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모네는 그런 식으로 石炭鋼鐵共同体的 기본 원칙이 토의된 최초의 회의를 몇차례 이끌어 나갔고 論争은 방지되었다. 協商代表들은 다른 代表더러 자신의 見解나 앞서 회의에서의 主張을 지지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다.

이것은 마침내 交換에 의한 妥協보다는 共同事業이라는 단일한 개념에 입각한 共同見解의 형성을 도왔다. 어떤 몇개의 部分的인 合意가 先行해야하는 종래의 협상개념과는 전혀 반대되는 協상 절차가 유익한 결실을 거둔것이다.

물론 유럽통합을 향한 史上 모든 協商이 전부 이런 調和속에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드골이 느닷없이 英國의 歐共市 加入을 거부한 것은 레스쁘리 코뮌노테트로부터의 한 보기좋은 脫線의 例가 된다.

「共同体 精神」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것은 共同体 國家 相互內의 互惠관계이다. 國家들이 어떤 長期的인 공동 노력에 일단 參與하면 各政府는 다른 會員國들의 장래協力이 必要하게 되며 따라서 서로의 善意에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의 어떤 好意는 내일의 實의를 確立하는 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協商

代表는 原則的 合意는 일단 받아들여놓고 보는것이 安全(다른 會員國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해지고 나머지 細部事項은 별도의 專門家나 기술자들에게 맡기게 된다. 「共同体 精神」이 協商代表들로 하여금 友好정도가 약한 國家間이라면 必要한 보다 嚴格한 和解 法則, 예컨대 議題에 관한 無益한 관심 部分協定 修正의 반대, 1對1 互惠原則에 입각한 양보, 형식적이고 딱딱한 協商 用語-이런 것들을 不必要하게 하였다. 그대신 공동목표에 대한 강한 強調, 솔직하게 開陣된 各國의 動機를 서로 볼 수 있게 되었고 東西間 會議에서나 유엔總會에서 世界가 목격해온 말의 낭비없는 회의가 가능했다. ....

#### 敵對國 協商에 있어서의 伸縮性과 確固한 態度

外交官들은 상대방이 協商에 관심을 갖도록하기 위해 제안 자체를 매우 伸縮性있게 꾸민다. 西方外交官들이 이같은 伸縮性을 상당히 즐기는 까닭은 協商 相對가 이쪽의 確固한 입장에 부딪혔을 때 合意不能의 態度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 어느 점에서 西方外交官들은 伸縮性있는 제안이 協商을 위한 온당한 方法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戰術은 相對便 外交官이 이쪽을 물고갈 수 있는대로 물고 가려들 때에는 自己 敗北的인 것이 되고 만다. 그들은 이쪽이 계속해서 어떤 選擇의 메뉴를 제외하고 있는 동안까지는, 말하자면 갈만큼 갖다는 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네 政府를 만족시키지도 못한다. 西方外交官들이 소련과의 協商過程에서는 절대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아선 안된다는 경고를 듣게되는 것도 이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물론 多樣性있는 제안이 소련과 만족할만한 合意를 이루게한 것도 있긴 있었다. 部分核實驗금지라는 西方側

제안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러나 相對가 어떤 合意에 도달하라는 國內 壓力을 받고 있거나 자기쪽에서 伸縮性을 보이려할 때는 이쪽의 伸縮性은 協商을 조속한 合意로 이끄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즉 그에게 많은 代案을 내보임으로써 그 중 하나를 그가 選擇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暗示的인 움직임이 正常 協商過程에서라면 오히려 伸縮性있게 進行했을 흥정을 硬化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까닭은 公開的인 協商 아닌 暗示에 의한 흥정인 이상 상대는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伸縮性있는 것인지 아니면 確固不動한 것인지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여론 기타에 의해 伸縮性있는 態度를 견지해야 할 입장에 있는 政治家라면 바로 그 暗示를 공식 언급함이 없이 자기네 제안에 연결하므로써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表面上 伸縮性없어 보이는 제안이 相對方을 協商 결렬로 이끌 수 있는 반면에 暗黙의 움직임은 이편의 伸縮性 결여가 의도적 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하므로써 오히려 相對方이 이것을 받아들여게 하는 수 도 있게 된다.

이같은 暗黙의 움직임이 1962년의 큐바위기 解決에 도움이 된 것이지 모른다. 후르시초프가 큐바미사일을 철수시킨 것은 큐바基地에 대한 美軍機들의 爆撃이 곧 뒤따를 것이라는 軍事情報 때문이었던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美國側의 이같은 위협은 暗示的인 것(케네디, 후르시초프內에 오고간 公式交換文書에 의한 限)이었기 때문에 후르시초프로서는 그 위협이 어느 정도로 伸縮性있는 것인지 아니면 確固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暗示的 위협은 큐바內 미사일을 철수하라는 미국側 요구가 強硬 確固한 것이라는 色彩를 띠게 했다.

그밖에 美系間에 明示된 다른 立場들은 그 伸縮性때문에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세컨데 유엔에 감시 임무를 맡기자는 美國 요구가 그것이다. 이 제안은 우탄트總長의 심사숙고와 카스트로의 비난을 거친뒤, 후르시초프에 와서는 赤十字社에 그 機能을 부여하자는 逆提案을 냈게했고 마침내는 美海軍이 소련 함정들을 원거리에서 조심스레 감시한다는 괴상한 合意로 나착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美國이 사일을 터키에서 철수하라는 호르시초프의 요구 역시 조용히 포기되었다. 또 美國이 큐바에 간섭하거나 侵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던 후르시초프의 주장 역시 유엔감시(미국은 유엔감시가 실현되면 그같은 약속을 하겠다고 제의했다)가 흐지부지해지자 흔적을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

#### 協商의 名聲과 評判

한 政府의 協商方式이나 그 政府가 어떤 合意를 수락 또는 거부했을 때의 條件,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장래 協商力에 매우 重 要한 影響을 끼친다. 어느 外交對決에 있어서나 政府들은 協定條 件을 有利하게 變換시키려할 뿐 아니라 장래 協商에 있어서의 그 들의 힘을 보호 改善하려 한다. 그들이 신경을 쓰고있는 것은 말하자면 名聲이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個人과 마찬가지로 그 名聲이란 걸 얻는다. 그 국가의 과거의 協商 실적에 입각하 여 他國들은 그 國家의 協商 스타일과 動機와 目標, 武力行使에 대한 態度, 政治的 의지의 정도, 기타 힘의 屬性들을 評價하게 된 다. 協商力은 그러나 이 屬性들이 실제로 무엇인가하는 것에 보 다는 他國들이 그 屬性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여기서부터 名聲 重要性이 나오는 것이다. ....

協商 評判의 影響은 가령 어떤 2개 國家가 ①相對方 條件에

의한 合意수락 ②결렬 ③協商繼續의 세가지 選擇을 놓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文脈을 例로 들면 쉽게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協商代表라면 당신은 相對方의 3개 選擇이 당신의 反應을 部分的으로 豫想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는 그가 判斷한 당신의 이미지에 그 豫상을 立脚시켜 놓은 것이며 당신의 모험에 대한 態度, 虛勢 경향, 당신 자신의 戰力 評價 및 그에 대한 당신의 評價, 당신의 立場 固守정도, 이런 屬性들을 또한 고려한다. 그는 또 당신의 이같은 諸屬性 가운데서 어떤 連續性을 想定한 뒤 과거 당신의 協商 업적에 立脚하여 그 屬性을 評價한다. 이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당신은 每 協商에 있어 유리한 結果를 이끌어낼려함 뿐 아니라 그렇게 하므로써 장차의 協商能力을 유지 改善하려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고려가 자주 相衡한다는 사실은 協商過程의 어려움과 複雜性을 더해 준다.

協商 名聲의 영향력은 게임理論을 빌려 쉽게 얘기할 수도 있다 즉 國際協商이라는 것은 결코 自己 充足的인 「게임」이 아니라 끝없는 「수퍼 게임」(超遊戲)과 막연하게 연결된 한 단계라는 점이다. 비록 각 단계는 그 자체의 決算을 내는 법이지만 그 단계에서 使用된 戰術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協商 단계에서 상대방의 計算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해서 結果的인 決算과 成果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 「수퍼 게임」은 다음과 같은 例外的 狀況에서만 그 끝장을 보게된다.

즉 政府의 存亡이 위급한 狀態에 빠지고 次期 政府와의 連續性을 기대할 수 없게된 狀況에서는 그 政府가 이 「超遊戲」의 終幕으로써 敗北狀況을 고려할 수 (● 경우 勝利란 있을 수 없다)



도 있다는 것이다.

· [프레즈 칼즈 가이클러, 「諸國의 協商術」(프레데릭 프레거찬, 뉴요크, 1967年刊) 중에서]

